

부담없는 가격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Naxos new releases



8.572078

후바이
바이올린협주곡 1, 2번 외
클로에 한슬립(vn)
앤드류 모렐리아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달의
추천음반

Laureate Series • Gui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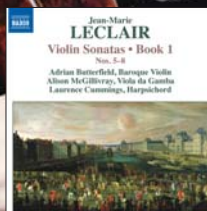


8.572390

Irina Kulikova
Winner
2008 Michele Pittaluga
Guitar Competition
City of Alessandria
Award
GUITAR RECITAL
PONCE
TANSMAN
BROUWER
JOS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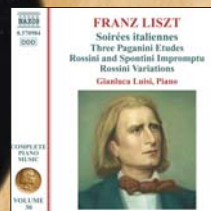
이리나 쿨리코바
기타 리사이틀

마누엘 폰세
알렉산드르 탄스만
레오 브루워
안토니오 호세의 기타 음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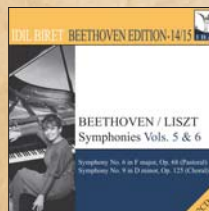
8.570889

르클레르:
바이올린소나타 Op.1
Nos.5-8
애드리언 버터필드(vn)
앨리슨 맥길리브레이(vc)
로렌스 커밍스(cemb)



8.570984

리스트:
이탈리아의 밤,
파가니니 연습곡 1, 4, 6번
외
잔루카 루이지(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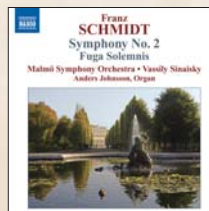
8.571264-65 [2CDs]

베토벤-리스트:
교향곡 6번 '전원',
9번 '합창' (피아노 편곡)
이달 비렛(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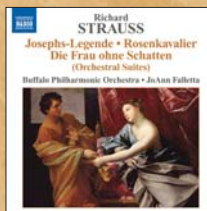
8.111341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2번
브람스: 피아노오중주
글렌 굴드(pf)
레너드 번스타인
컬럼비아 심포니
몬트리올 스트링 콰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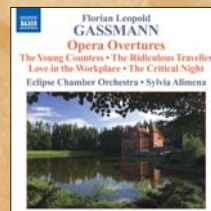
8.570589

슈미트:
교향곡 2번, 장엄 푸가
바실리 시나이츠키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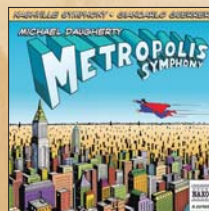
8.572041

R. 슈트라우스:
관현악모음곡
(장미의 기사, 그림자 없는
여인, 요제프의 전설)
조안 팔레타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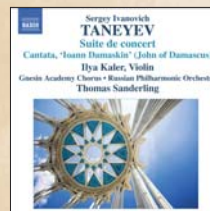
8.570421

가스만:
오페라 서곡들
실비아 앨리메나
익클립스 챔버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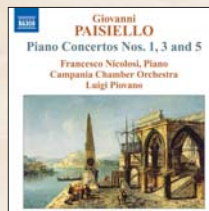
8.559635

도허티:
메트로폴리스 교향곡,
피아노협주곡 'Dues ex
machina'
테렌스 월슨(pf)
잔카를로 게레로
내시빌 심포니 오케스트라



8.570527

타네예프:
칸타타 '요안 다마스킨',
협주 모음곡
일라 칼라(vn)
그네신 음악원 합창단
토마스 잔데링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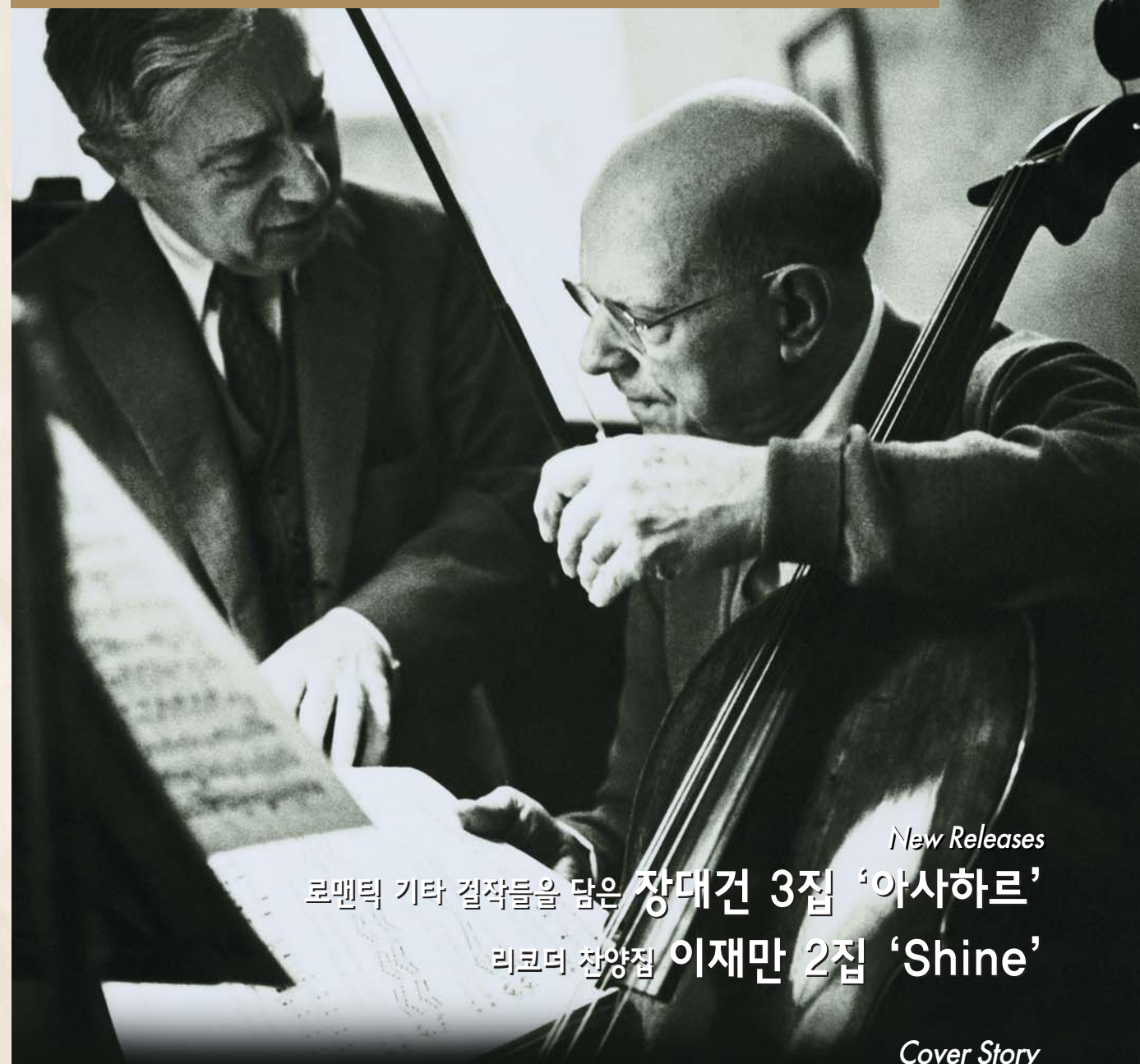


8.572065

파시엘로:
피아노협주곡 1, 3, 5번
프란체스코 니콜로시(pf)
루이지 피오바노
캄파니아 챔버 오케스트라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39호 | September 2009



New Releases

로맨틱 기타 걸작들을 담은 창대건 3집 '아사하르'

리코더 찬양집 이재만 2집 'Shine'

Cover Story

파블로 카잘스 프라드 페스티벌 실황 전집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02_922_0100 팩스: 02_922_2522 www.aulosmed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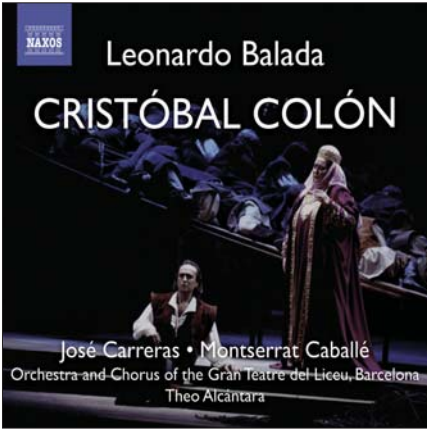
[판매처]

전국 교보한트랙스 매점/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뮤직랜드/ 인터파크/
애반/ 풍월당/ 예전레코드/ 하이클레식/
뮤직프라자(종로)/ GM뮤직(부산)



Naxos

www.naxos.com



8.660237-38 [2CDs]
발라다: 크리스토팔 콜론(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호세 카레라스/ 몽세라 카바예/ 테오 알칸타라/
바르셀로나 리세우 대극장

발라다의 오페라 '크리스토팔 콜론'은 콜럼버스의 미대륙 발견 500주년을 기념하여 스페인 정부의 위촉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현대 오페라 답지 않은 풍부한 선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본 신보는 스페인이 낳은 위대한 오페라 스타들인 호세 카레라스와 몽세라 카바예가 주연을 맡아서 유럽 오페라계에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1989년 바르셀로나 리세우 대극장에서의 역사적인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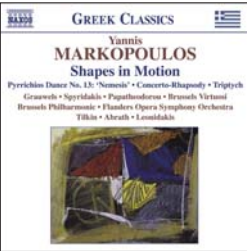
8.570444
프랑스 플루트 실내악
(투르니에르, 슈미트, 프랑사이, 루셀, 피에르네)
미라쥬 켄텃

플루트는 근현대 프랑스 작곡가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악기다. 프랑사이의 오중주는 섬세하고도 세련된 매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며, 루셀의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작품인 '세레나데', 피에르네의 기교적인 변주곡, 다양한 개성을 담은 네 악장들로 구성된 투르니에르의 모음곡, 우아함으로 채색된 슈미트의 로코코 모음곡 등 플루트 중심의 매력적인 실내악 작품들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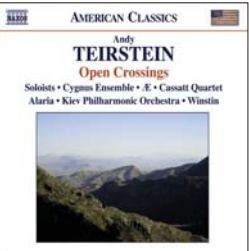
8.570211
글라주노프:
극부수음악 <가면무도회>
그네신 아카데미 합창단/ 드미트리 아블론스키/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레르모노프의 연극을 위해 완성한 극부수음악인 '가면무도회'는 필사본만으로 남아있던 작품이다. 차이코프스키의 로맨틱 발레의 전통을 가장 충실히 계승했던 글라주노프의 작품답게 아름다운 선율미와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무대화의 화려함을 한껏 돋보이게 만든 작품으로, 특히 오리엔탈 풍의 이국적인 선율과 헝가리의 집시음악의 요소들이 독특한 매력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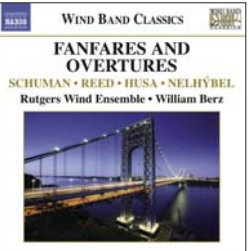
8.572237
마르코풀로스:
피아노협주곡 '움직임의 모양', 콘체르토 랩소디 외
디미트리 파파테오도로우(피아노)/ 이안니스 레오니다키스/ 플란더스 오페라 외

크레타 출신의 안니스 마르코풀로스는 현재 그리스 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손꼽힌다. 콘체르토 랩소디는 작곡가의 고향을 대표하는 악기인 크레타 리라를 독주악기로 활용한 협주곡 풍의 작품이다. 삼부작은 플루트와 하프, 그리고 현악합주의 대비되는 소노리티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작품이며, 피아노협주곡 '움직임의 모양'은 독주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사이의 하모니 밸런스에 중점을 둔 작품이다.



8.559617
테이어스테인:
Open Crossings
여러 연주자들/ 로버트 얀 윈스틴/ 키에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외

앤디 테이어스테인은 발칸반도와 유태, 그리고 애팔래치아 산악지대의 민속음악들에서 음악 소재를 인용해왔던 작곡가다. 모음곡은 바로크 춤곡 모음곡을 재현한 작품이며, '댄 맥그루의 춤'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각각 로버트 서비스와 마흐무드 다르위시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들이다. 유태하프와 밴조를 활용한 현악사중주와 포크 뮤지션을 위한 3개의 악장, 바울라협주곡 풍의 작품인 '마라무레스'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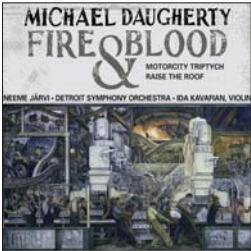
8.572230
팡파르와 서곡들
(리드, 후사, W. 슈만)
윌리엄 버츠/ 러처스 윈드 앙상블

윈드 앙상블의 롤스 로이스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 러처스 윈드 앙상블의 낙소스 데뷔 음반. 미국 작곡가 오웬 리드의 서곡의 윈드 앙상블 편곡과 '기억을 위한 팡파르', 체코 작곡가 카렐 후사의 스메타나 오마주인 스메타나 팡파르, 체코의 15세기 군가들을 바탕으로 한 '1968년 프라하를 위한 음악', 윈드 앙상블을 위한 윌리엄 슈만의 대표작인 '조지 워싱턴 다리' 등을 수록.



8.559384
웰처: 현악사중주 1-3번
카사트 현악 사중주단

웰처의 현악사중주 1번은 신경을 거슬리는 격한 1악장, 멜랑콜리한 2악장, 유머 속에 음울함을 담은 스케르초, 장엄한 승리의 찬가인 마지막 악장이 결합된 작품. 2번 '항구 음악'은 호주의 미항 시드니에서 받은 영감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3번 '카사트'는 미국의 인상주의 화가 마리 카사트의 회화들을 각각 모티프 삼은 세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주 역시 이 화가의 이름을 딴 카사트 사중주단이 맡았다.



8.559372
도허티:
바이올린협주곡 '불과 피', 모터 시티 삼부작, 지붕을 올려라 이다 카바피안(바이올린)/ 네메 에르비/ 디트로이트 심포니

거장 네메 에르비가 낙소스에 등장하였다. 마이클 도허티가 디트로이트 심포니의 상주작곡가로 재직시에 이 악단을 위해 완성한 세 작품을 담은 음반으로, 프리다 칼로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은 바이올린협주곡 '불과 피',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를 상징하는 작품인 '모터시티 삼부작', 팀파니가 독주악기로 활약하는 독특한 협주곡 풍 작품인 '지붕을 올려라' 등이 수록되었다.



8.570880
말리피에로:
교향곡 5,6,8,11번
안토니오 데 알메이다/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말리피에로 교향곡 시리즈의 3탄. 작곡가의 교향곡들 중 가장 자주 연주되는 인기작 네 작품을 수록하였다. 대단히 독창적인 스타일의 작품인 현을 위한 교향곡 6번, 두 대의 피아노가 콘체르탄테 역할을 하는 교향곡 5번,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을 보여주는 8번 '짧은 교향곡', '백파이프'라는 부제처럼 이 악기 특유의 왕왕대는 듯한 오스티나토가 인상적인 교향곡 11번 등이다.



8.570874
피제티:
피아노협주곡 '전성기의 노래', 카비리아, 페드라 수산나 스테파니 카에타니(피아노)/ 올렉 카에타니/ 로버르트 슈만 필하모니아

피제티는 카젤라, 말리피에로, 레스피기와 더불어 20세기 초 이탈리아 기악 음악의 부흥을 이끌었던 4인방 중의 한 사람이다. 농악은 로멘티시즘을 담은 피아노협주곡 '전성기의 노래', 풍부한 표정이 돋보이는 오페라 '페드라'의 1막 전주곡, 그리고 무성영화 '카비리아'를 위해 씌어진 색채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작품인 '불의 심포니아' 등의 작곡가의 대표 관현악곡들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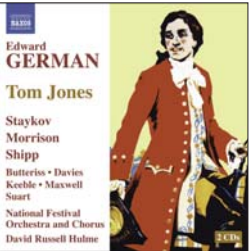
8.570706
야나체크:
오페라 관현악 편곡(교향할 새끼 암여우, 죽은자의 집으로부터) 페터 브라이너/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야나체크의 오페라들을 관현악 모음곡의 형태로 갈무리했던 페터 브라이너의 작업이 이 음반을 통해 일단락되었다. 이번 신보에는 우화를 통해 삶과 죽음의 비정한 현실을 표현한 독특한 성격의 오페라인 '교향할 새끼 여우'와 고독과 허무를 진지하게 다룬 작곡가의 만년 걸작 오페라인 '죽은자의 집에서의 하이라이트들을 관현악 모음곡의 형태로 재구성한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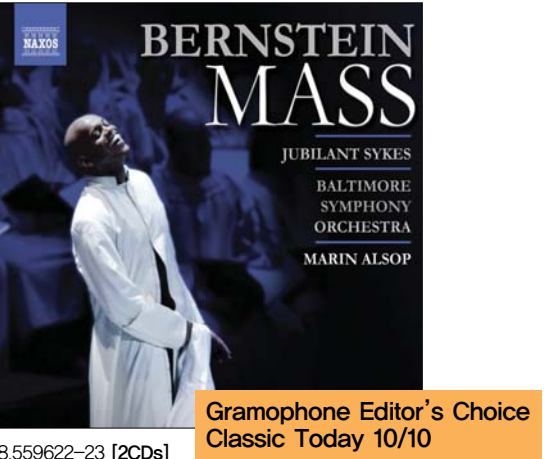
8.660253-54 [2CDs]
푸치니: 오페라 <제비>
바실레바, 사르토리, 다숙 외/ 알베르토 베로네시/ 푸치니 페스티벌

오페라 '제비'는 푸치니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연주빈도가 낮은 축에 속하지만, 작곡가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미가 잘 살아있는 작품이다. 2007년 푸치니 페스티벌에서의 실황을 담은 음반으로, 1,2막은 1917년의 오리지널 버전으로, 3막은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세 번째 버전을 로렌초 페레로가 완결한 버전으로 수록한 것이다. 미모의 소프라노로 각광받고 있는 스베렐라 바실리에바가 주인공 막다 역을 노래하였다.



8.660270-71 [2CDs]
저먼: 오페레타 <통 존스>
스타이코프, 모리스 외/ 데이비드 러셀 헐프/ 내셔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에드워드 저먼의 오페레타 '통 존스'는 길버트 & 설리반 콤비의 대중적 인기를 계승했던 영국 오페레타의 대표작 중 하나다. 로맨틱 스타일의 밝고 가벼운 악풍이 지배하는 이 작품에서 특히 '오늘밤을 위해', '1월 아침에', '병사의 진홍빛 코트' 등과 같은 노래들이 크게 인기를 끌었다. 본 음반은 이 작품 최초의 전곡 녹음으로, 특히 첫 공연 당시 생략되었던 세 곡도 온전히 복원되었다.



8.559622-23 [2CDs]
번스타인: 미사
주빌런트 사이크스(사제)/ 모건 대학 합창단/ 마린 알습/ 볼티모어 심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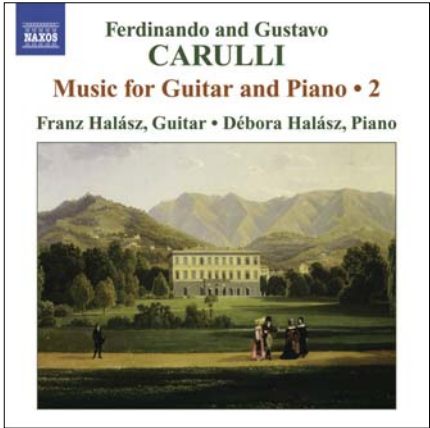
번스타인은 재클린 오나시로부터 워싱턴 케네디 센터의 개관을 위한 작품을 위촉받았다. 그 결과물이 바로 가수, 연주자, 그리고 댄서들을 위한 독특한 무대극인 '미사'다. 초연 직후 가톨릭의 전례를 변질시켰다는 비난도 받았지만, 지금은 번스타인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손꼽힌다. 번스타인에게서 지휘를 배웠던 여걸 지휘자 마린 알습은 강렬한 카리스마로 스승에 대한 훌륭한 오마주를 탄생시켰다.



8.571261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 합창환상곡
이딜 비렛(피아노)/ 터키 국립 필리포닉 합창단/ 안토니 비트/ 빌켄트 심포니
터키의 국보급 피아니스트이자 낙소스의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핵심 아티스트로 활약해왔던 이딜 비렛이 베토벤의 가장 유명한 피아노협주곡인 5번 '황제'와 교향곡 9번 '합창'의 프로토타입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피아노 독주와 4중창, 그리고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합창환상곡을 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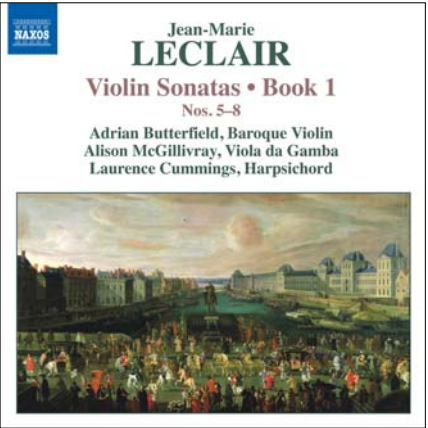
8.571260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9, 10, 13, 14번 '월광'
이딜 비렛(피아노)
이딜 비렛은 포르테시모를 절제하는 가운데서도 큰 윤곽선을 그려나간다. 피아노 톤은 화려하며, 우아하고 심미적인 소노리티 역시 매혹적이다. 누구나 이 연주들을 듣고 나면 비렛의 스승이 빌헬름 쾨프였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라모폰-



8.570588
F. 카롤리 & G. 카롤리:
기타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Vol.2
프란츠 할라스(기타)
데보라 할라스(피아노)
페르디난트와 구스타보 카롤리 부자의 작품들은 당시 파리 부르조아들의 가정음악화용 레퍼토리로 큰 인기를 누렸었다. 로시니의 '라 체네렌 툴라'와 '알제리의 이탈리아여인'의 서곡들의 재치있는 편곡들을 비롯하여 살롱풍의 우아한 왈츠, 아기자기한 선율미와 비르투오서티를 함께 아우른 듀오 작품들 등등 기타와 피아노가 만들어내는 청량한 소노리티를 한껏 머금은 매력만점의 음반.



8.572078
후바이:
바이올린협주곡 1,2번 외 클로에 한슬립(vn)
앤드류 모렐리아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존 아담스와 고다르의 바이올린협주곡 음반들로 음악산동을 넘어서서 원숙한 음악연주자로 자신의 위상을 재정립한 클로에 한슬립의 최신보. 세기 전환기의 걸출한 비르투오조 겸 작곡가였던 예뇌 후바이의 로맨틱한 바이올린협주곡 두 작품(특히 느린 악장들이 빼어나다.)과 그의 가장 널리 알려진 바이올린 소피이스타 조국 헝가리의 민족색이 물씬 배어나오는 작품들인 'Scene de la csarda' 3,4번을 함께 수록하였다.



8.570889
르클레르:
바이올린소나타 Op.1 Nos.5-8
애드리언 버터필드(vn)
앨리스 맥길리브레이(vc)
로렌스 커밍스(cemb)
영국의 대표적인 시대악기 연주자들인 버터필드, 맥길리브레이, 커밍스가 프랑스 바로크 바이올린의 거두인 르클레르의 바이올린 소나타에서 호흡을 맞추었다. 당시 프랑스를 지배하던 코렐리 스타일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이들 소나타들은 작곡가 특유의 풍부한 장식과 아름다운 서정, 그리고 백파이프 사운드나 스코틀랜드 피들을 연상케 하는 목가적인 분위기가 절묘하게 결합된 매력적인 작품들이다.



8.557805
크반츠:
플루트소나타 Nos.272-277
베레나 피셔(플루트)
클라우스-디터 브란트(첼로)
레온 베르벤(하프시코드)
요한 크반츠는 바로크-고전 전환기의 대표적인 작곡가 중 하나이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음악양식들을 적절히 조합한 혼합 양식의 선구자였다. 30년간 시봉했던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제를 위해 수많은 플루트 작품들을 완성하였는데, 본 음반에 수록된 여섯 곡은 그중 가장 뛰어난 작품에 속하는 것들이다. 무지가 안티쿠아 쾰른의 주축 멤버였던 세 연주자들이 연주를 맡았다.



8.571264-65 [2CDs]
베토벤-리스트:
교향곡 6번 '전원', 9번 '합창' (피아노 편곡)
이딜 비렛(pf)
전원교향곡은 비렛의 강렬함과 색채 위로 한층 더 무성함을 자랑한다. 1악장은 황금빛 사운드에 잠겨 있으며, 천상의 칸티넬라와 같은 안단테 악장이 그 뒤를 따른다. 이 악장은 18분 가까이 이어지며 비렛의 평온함이 함께 한다. 3악장 폭풍우에서는 리스트안다운 면모를 확실히 보여준다. - 그라모폰 -
[EMI 엘렉트라 음원의 재발매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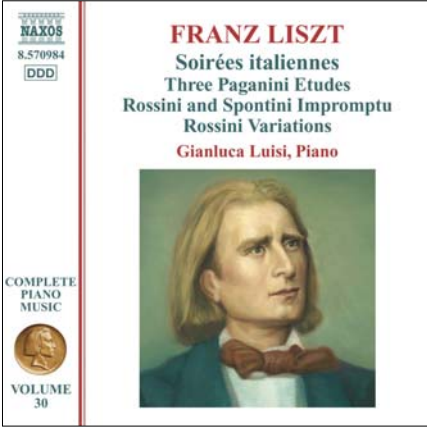
8.572390
이리나 쿨리코바 기타 리사이틀
마누엘 폰세, 알렉산드르 탄스만,
레오 브루워, 안토니오 호세의 기타 음악들
2008년 알레산드리아 콩쿠르 우승자인 러시아 출신의 여류 기타리스트 이리나 쿨리코바의 낙소스 데뷔레코딩. 심대 중반부터 실력파 연주자로 러시아 내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그는 이 콩쿠르를 통해 명실상부한 정상급 기타리스트로 전세계적으로 공인받게 되었다. 마누엘 폰세의 소나타 3번, 소나티나 메르디오날, 레오 브루워의 장고 라인하르트 변주곡, 안토니오 호세의 소나타, 탄스만의 스크라빈 변주곡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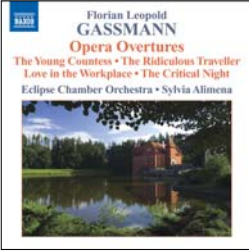
8.570589
슈미트:
교향곡 2번, 장엄 푸가
바실리 시나이츠키/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
바실리 시나이츠키와 말뫼 심포니가 진행중인 슈미트 교향곡 시리즈의 두번째 음반. 교향곡 2번은 원래 피아노소나타로 계획되었다가, 작곡가 특유의 색채적인 관현악법을 통해 대편성 교향곡으로 거듭난 작품이다. 독일 후기낭만 음악의 마지막 대가다운 풍부하고도 다채로운 악상 변화가 인상적인 작품. 오르간과 13대의 관악기, 그리고 타악기를 위한 독특한 편성의 작품인 장엄 푸가가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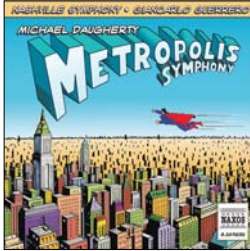
8.572041
R. 슈트라우스:
관현악모음곡(장미의 기사, 그림자 없는 여인, 요제프의 전설)
조안 팔레타/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판타지 오페라 '그림자 없는 여인'과 창세기의 내용을 기초로 한 발레 '요제프의 전설'은 작곡가 자신이 갈무리한 관현악편곡들을 통해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 여기에 고상하고도 우아한 음악코메디로 작곡가의 오페라들 중 가장 큰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장미의 기사'에서 간추린 관현악 모음곡을 더하였다. 마린 알송과 더불어 지휘대 위의 우먼파워를 대표하는 조안 팔레타와 버팔로 필의 최신보.



8.570984
리스트:
이탈리아의 밤, 파가니니 연습곡 1,4,6번 외 잔루카 루이지(pf)
이탈리아의 밤'은 이탈리아 작곡가 메르카단테의 동명 작품(Serate italiane)을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것이다. 리스트는 파가니니의 무반주 바이올린 카프리스를 rhehm이 기교를 요구하는 피아노연습곡으로 편곡하였다. 음반에는 그 중 1번(카프리스6번), 4번(카프리스 1번), 6번(카프리스 24번)을 수록하였다. '로시니와 스포티티의 주제에 의한 즉흥곡', '로시니 테마에 의한 7개의 변주곡'을 함께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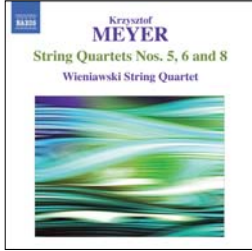
8.570421
가스만:
오페라 서곡들
실비아 엘리메나/ 익클립스 챔버 오케스트라
보헤미아 출신의 작곡가 플로리안 레오폴드 가스만은 지금은 잊혀진 이름이지만, 18세기 베네치아와 빈 오페라 무대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작곡가였다. 신보에는 그의 오페라들 중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인 '우스꽝스런 여행자', '일터에서의 사랑', '젊은 백작부인'을 비롯하여 10편의 오페라 서곡들이 담겨있다. 급원급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이들 서곡들은 18세기 중반 오페라 서곡들의 전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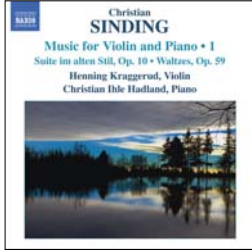
8.559635
도허티:
메트로폴리스 교향곡, 피아노협주곡 'Dues ex machina' 테렌스 월슨(pf)/ 잔카를로 게레로/ 내시빌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이클 도허티의 메트로폴리스 교향곡은 슈퍼맨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여 완성된 작품으로, 슈퍼맨의 에너지와 모호함, 그리고 역설을 미국 팝 문화 특유의 위트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특히 마지막 악장인 레드라인 탱고는 독립적으로도 널리 연주되는 인기곡이다. 'Deus ex machina'는 기타를 소재로 만든 피아노협주곡으로 각 악장은 근대의 고속기관차, 링컨의 장례열차, 과거의 증기기관차를 각각 묘사하였다.



8.570963
슈포어: 더블 쿼텟 1,2번
포르데 앙상블
루이스 슈포어는 하이든,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에 비견될 만큼 위대한 실내악 작곡가였다. 그는 36곡의 현악사중주와 자신만의 독자적인 실내악 장르인 더블 쿼텟 네 작품을 후대에 남겼다. 여덟 연주자들의 잠재력을 균형감있게 활용하고 있는 슈포어의 더블 쿼텟은 특히 두 그룹이 긴밀하게 서로 주고 받는 안티폰 효과를 통해 이 장르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낸다.



8.570776
마이어: 현악사중주 5,6,8번
비에니아프스키 스트링 쿼텟
폴란드의 현존 작곡가 크리지슈토프 마이어(1943년생)의 실내악은 18세기 빈 고전주의를 음악적 근원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바르톡의 신랄한 음악적 악센트와 폴란드의 민족색채가 더해졌다. 작곡가 본인은 자신의 현악사중주들에 대해 '단순한 음향적인 자극이 아닌, 감상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음악적 요소를 지닌 사운드 스토리'라고 자평하였다.



8.572254
신당: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집 1집
헨닝 크라게루트(vn)/ 크리스티안 일레 하드란트(pf)
크리스티안 신당은 노르웨이 출신으로 그는 그리고 다음으로 유명한 작곡가다. 본 음반에 수록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은 북극 특유의 감성적인 선율미가 돋보이는 전형적인 로맨틱 소품들이다. 그리고의 소나타와 시벨리우스/신당의 협주곡으로 호평을 받았던 노르웨이의 기대주 헨닝 크라게루트의 뛰어난 표현력과 1744년 가르네리 델 제수의 매력적인 사운드가 작품들의 로맨틱한 시정을 한결 돋보이게 한다.



8.572075
루에다: 피아노소나타 1,2번, 24개의 간주곡, 메피스토 외 아난다 수카를란(pf)
스페인 음악계의 중견 작곡가인 헤수스 루에다(1961년생)는 쇼팽, 리스트, 라벨, 프로코피예프의 잔영이 느껴지는 피아노 작품들을 다수 남기고 있다. 리스트의 동명 작품을 모델로 한 현란한 기교의 전시장과 같은 작품인 '메피스토', 재즈와 발리 음악의 영향을 담은 소나타 2번, 어린이를 단순명료한 작품인 인벤션, 섬세하고도 심미적인 음향의 변화상을 담은 24개의 간주곡 등 개성만점의 작품들을 담았다.



8.570527
타네예프:
칸타타 '요안 다마스킨', 협주 모음곡
일라 칼러(vn)/ 그네신 음악원 합창단/ 토마스 잔데링/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토마스 잔데링이 진행중인 타네예프 관현악 시리즈의 3번째 음반. 톨스토이의 시에서 영감을 얻은 칸타타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자신의 첫 작품번호를 부여했던 회심작으로, 풍성한 대위 패시지 사이로 고대의 찬트 선율이 적절히 활용되었다. 콘서트 모음곡은 바이올린협주곡과 바로크 시대의 춤곡 모음곡을 접목한 작품으로, 독주자의 초절기교와 작곡가 특유의 서정미가 곳곳에서 빛난다.



8.572065
파이시엘로:
피아노협주곡 1,3,5번
프란체스코 니콜로시(pf)/ 루이지 피오바노/ 캄파니아 챔버 오케스트라
80편 이상의 오페라를 양산했던 조반니 파이시엘로는 당대에 모차르트의 강력한 경쟁자로 각광받았던 인물이다. 그가 남긴 8편의 피아노협주곡은 고전협주곡의 정갈한 형식미와 이탈리아인 특유의 풍부한 선율감각이 멋지게 결합된 절품들이다. 1번 협주곡은 원래 하프시코드를 위해 완성한 곡이었지만, 모던 피아노를 통해서도 명징한 아름다움이 충분히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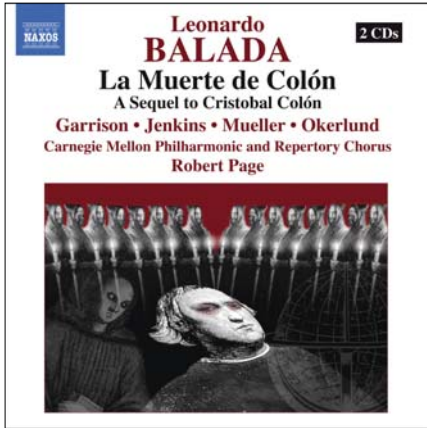
8.571272
생상:
피아노협주곡 5번 '이집트', 라벨: 피아노협주곡, 왼손을 위한 협주곡
이딜 비렛(pf)/ 장 푸르네/ 빌켄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터키의 국보급 여류 피아니스트 이딜 비렛이 프랑스 근현대 피아노협주곡들에 도전하였다. 모차르트의 유희성을 재현한 라벨의 피아노협주곡 G장조와 전쟁에서 오른손을 잃은 피아니스트 비트겐슈타인을 위해 완성한 왼손을 위한 협주곡, 그리고 '이집트'라는 부제처럼 이국적인 분위기로 채색된 생상의 피아노협주곡 5번을 함께 수록하였다. 2008년 11월 타계한 프랑스의 거장 장 푸르네가 지휘봉을 잡았다.



8.570002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2,5번, 카프리치오, 푸가
뉴질랜드 스트링 쿼텟
그라모폰과 클래식 FM 매거진을 통해 호평 받았던 1집에 이어 뉴질랜드 쿼텟의 두번째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음반이 출시되었다. 신보에 수록된 2번과 5번은 모두 베토벤에 대한 경의를 담은 작품들로 고전적인 스타일에 로맨틱한 감성이 적절히 결합되었다. 작곡가 특유의 밝은 생기와 천부적인 서정성은 이 작품들에 서도 변함 없이 위력을 드러낸다. 사후에 출판된 소품들인 카프리치오와 푸가 단조가 함께 수록되었다.



8.660259-60 [2CDs]
베르디: 맥베스
주제페 알토마레, 올라 주라벨 외/ 다니엘레 칼레가리/ 마르키기아나 필하모니
맥베스는 베르디의 초기 오페라들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베르디는 파리 리рик 극장의 초청을 받은 뒤 이 작품을 대대적으로 개작했는데, 신보에는 바로 이 개정 버전이 수록되었다. 2007년 마체라타의 스페리스테리오 오페라 페스티벌의 실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젊은 기대주들인 주제페 알토마레와 올라 주라벨이 맥베스 부부를 열연하였다.



8.660193-94 [2CDs]
발라다: 콜롬부스의 죽음
존 개리슨, 주디스 젠킨스 외/ 로버트 페이지/ 카네기 멜론 필하모니
레오나르도 발라다의 오페라 '콜롬부스의 죽음'은 미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작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8.660237-38)의 후속작이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바르셀로나로 귀환하는 콜롬부스의 개신장면을 묘사한 스펙터클한 오프닝에서부터 위대한 탐험가의 임종장면을 담은 마지막 엔딩까지 서정적인 선율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꼼꼼히 채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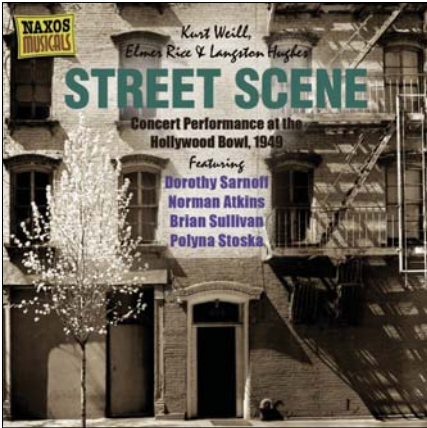
Naxos Historical & Nostalgia

www.naxos.com



Daca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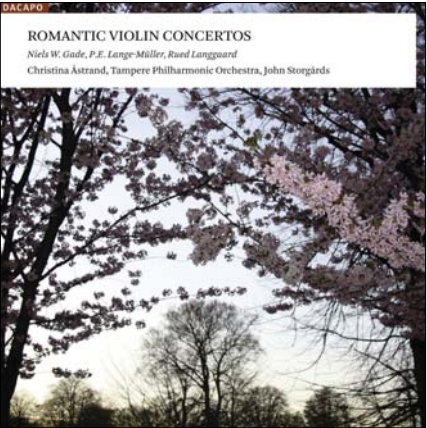
www.dacapo-records.d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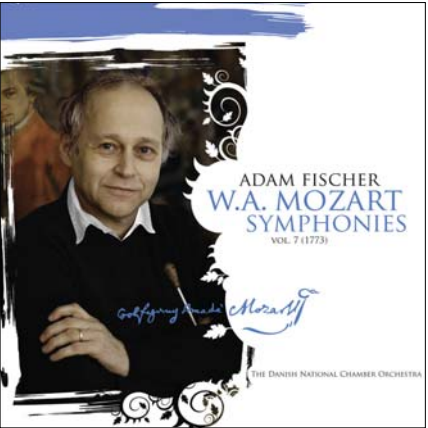
8.120885
바일:
거리 풍경(Street Scene)
1949년 헐리우드 보울 콘서트 실황
폴리처상을 수상한 엘머 라이스의 희곡에 기초한 쿠르트 바일의 뮤지컬 '거리 풍경'은 1947년 브로드웨이에서 첫 선을 보인 이래 5개월 동안 148회나 공연되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던 작품이다. 본 음반은 1949년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 볼에서 펼쳐졌던 콘서트 실황을 미군방송(AFN)에서 해외 방송을 위해 녹음해두었던 음원을 담은 것이다.



8.111341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2번, 브람스: 피아노오중주
글렌 굴드(pf)/ 레너드 번스타인/ 컬럼비아 심포니, 몬트리올 스트링 콰텟
글렌 굴드가 24세 되던 해인 1957년, 번스타인과 협연한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2번에서는 청년 굴드의 생기발랄함과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배어나온다. 아다지오 악장의 서정미를 감성적으로 매만져나가는 번스타인의 서포토도 훌륭하다. 몬트리올 콰텟과 협연한 브람스의 피아노오중주 Op.34 역시 1957년의 기록으로, 낭만 실내악에서 굴드가 남긴 몇 안되는 소중한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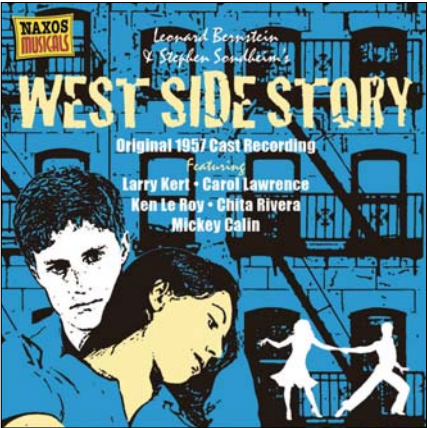
6.220562 [Hybrid-SACD]
로맨틱 바이올린협주곡(가데, 랑예-뮐러, 랑고르)
크리스티안 오스트란트(바이올린)/ 온 스토르고르/ 탐페레 필하모닉
덴마크 대표작가들의 로맨틱 바이올린협주곡들. 멘델스존과 슈만의 친구였으며, 그리그와 닐센의 스승이었던 가데의 작품은 당당한 스케일 속에 멘델스존을 연상케하는 로맨틱한 시정을 담았으며, 랑예-뮐러의 작품은 가곡들을 통해 발휘되었던 이 작곡가의 빼어난 선율감각을 엿볼 수 있다. 랑고르의 협주곡은 연주시간 10분 정도의 간결한 작품이지만 이 작곡가 특유의 독창적인 서법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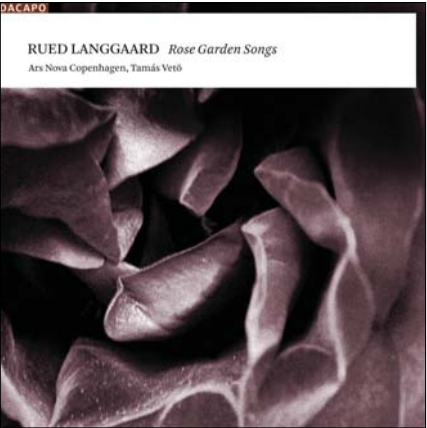
6.220542 [Hybrid-SACD]
모차르트: 교향곡 22-25번, 27번
아담 피셔/ 덴마크 국립 챔버 오케스트라
아담 피셔는 하이든 교향곡 전집을 완성했던 소수의 지휘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고전교향곡에 대한 그의 심미안이 모차르트의 중기 교향곡들에서도 다시금 빛을 발한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통해 큰 인기를 끌었던 교향곡 25번에서 아담 피셔의 강렬하고도 시원시원한 추진력이 단연 돋보인다. 오디오파일로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녹음이 뒷받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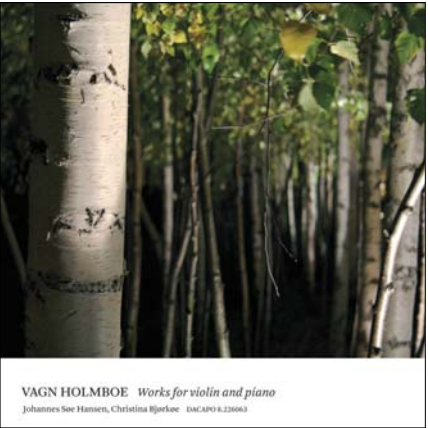
8.112019
바흐-스토코프스키:
관현악 편곡 Vol.2
스토코프스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외
스토코프스키 자신의 지휘로 녹음된 바흐 관현악 편곡 2집. 1929년부터 1950년에 걸쳐 녹음된 기록들을 함께 모았다. 줄리어스 베이커가 독주를 맡은 관현악 모음곡 2번 외에도,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G선상의 아리아', '그리스도는 죽음에 잡혀', '판타지와 푸가',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3번의 전주곡',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중 목자음악', '양들은 편히 풀을 뜯고'와 같은 귀에 익은 바흐의 선율들을 담았다.



8.120887
번스타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1957년 오리지널 캐스팅
1957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플롯을 20세기 중반 뉴욕의 뒷골목으로 옮긴 작품이다. 'Maria', 'Tonight', 'America'와 같은 히트송들을 담고 있으며, 번스타인의 무대음악 중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인기작으로 손꼽힌다. 본 음반은 초연 직후 발매되었던 오리지널 캐스팅의 음반을 복각한 것으로, 1954년 녹음된 'On the waterfront'의 일부를 함께 수록하였다.



6.220561 [Hybrid-SACD]
랑고르:
합창음악
타마스 베퇴/ 아르노 노바 코펜하겐
랑고르는 교향곡을 비롯한 관현악 분야에서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추구했지만, 그가 남긴 아카펠라 합창곡들은 과거 르네상스나 바로크 시대의 종교합창곡을 연상케 하는 정결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르네상스 폴리보니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보컬 앙상블인 아르스 노바 코펜하겐의 뛰어난 앙상블이 작품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하며, SACD의 뛰어난 사운드 퀄리티가 이를 뒷받침하였다.



8.226063
홀름보에:
바이올린소나타 1-3번 외
요하네스 쇠 한센(vn)/ 크리스티나 보르코(pf)
홀름보에는 작곡과 교육 양면에서 덴마크 음악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는 주로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음악을 추구하였다. 신보에 수록된 바이올린소나타들과 소품들은 192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는 긴 시간대에 걸친 것들로, 젊은 시절 몰입했던 발칸과 트란실바니아의 민속음악, 덴마크의 잊혀진 피들음악의 전통, 바르토크와 쇼스타코비치와 같은 동시대 작곡가들의 영향 등을 살펴볼 수 있다.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MD&G]

www.mdg.de



603 1555-2
시마노프스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요안나 몽드루슈키에비치(바이올린)/
파울 굴드(피아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시마노프스키의 작품 전체를 수록한 음반. 프랑크와 브람스를 모델로 삼은 소나타 Op.9는 음악원 재학 시절의 초기작임에도 상당한 완성도를 보여 주며, 그리스신화에서 영감을 얻은 3개의 신화(Mythes)는 작곡가의 대표 실내악으로 손꼽힌다.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중 세 곡(20,21,24)에 피아노 반주를 추가한 편곡들과 로맨틱한 서정을 담은 '로망스'와 '아이다호 데니아의 자장가'를 수록.



613 1520-2
어린이를 위한 현대피아노곡
(구바이둘리나, 쿠르탁, 라헨만 외)
슈테펜 솔라이머하허(피아노)

통영음악제를 통해 국내 애호가들에게도 친숙한 현대음악 전문 피아니스트 슈테펜 솔라이머하허가 어린이를 위한 현존 작곡가들의 피아노 소품들을 연주한 음반. 구바이둘리나의 '음악장난감', '엄지공주', 쿠르탁의 '바레스 오마쥬', '카도사 오마쥬', '12 Microludies'와 '12 new microludies', 라헨만의 '어린이 놀이' 그리고 솔라이머하허 자신의 작품인 '발란스-4 microludies'가 무려 63개의 트랙을 빼곡히 채웠다.



309 1566-2 [3 for 2]
스테파니:
오페라 <관대한 오를란도>
로베르타 인베르니치 외/
베른바르트 로어/ 무지카 알타 리파

아고스티노 스테파니는 베네치아출신이지만 독일에서 음악 이력의 대부분을 보냈다. 영국왕 조지 1세의 아버지인 선제후 에른스트의 총애를 받으며 하노버 궁정에서 활약했으며, 작곡가로서 뿐만 아니라 외교관으로서도 맹활약했다. 1691년에 초연된 오페라 '관대한 오를란도'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기교적인 특징과 프랑스 극음악의 우아함을 적절히 접목한 작품으로, 헨델이 그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음을 반증한다.



Marco Polo
www.nax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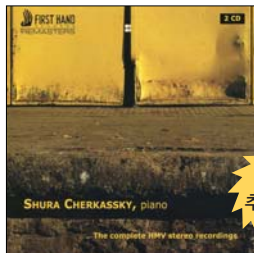


8,225335
요한 슈트라우스 1세:
퍼레이드 행진곡, 민네젱거 왈츠 외
크리스티안 폴락
슬로박 신포니에타 칠리나

요한 슈트라우스 1세 에디션의 15번째 음반. 빈 대중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던 '상류층 쿼드럴', 의기양양한 '순회공연자 왈츠', 대단히 독창적인 '발할라-토스트 왈츠'와 '민네젱거 왈츠', 위풍당당한 '퍼레이드 행진곡' 등의 개성적인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First Hand Records
www.firsthandrecords.com



강력
추천음반

FHR04 [2CDs]
슈라 체르카스키 HMV 스테레오 레코딩 전집
모든 피아노 학도들의 필청반 -그라모폰 8월호 제레미 니콜라스-

쇼팽, 베토벤,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거쉰, 생상-고도프스키, 폴락 외 가장 시대의 향수를 담았던 마지막 연주자 슈라 체르카스키. 그가 1950년대 중반에 남겼던 HMV의 스테레오 녹음들이 퍼스트 핸드 레이블을 통해 복원되었다. 오리지널 마스터 테이프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최고수준의 복각. 손톱의 타건음과 미세한 타건의 여운 및 피아노의 배음까지도 들릴 정도로 복각상태가 훌륭하다. 섬세한 질감의 하늬거름이 숨막힐 정도인 생상-고도프스키의 백조,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들은 스승 호프만을 연상시킬 정도로 박력있고 엄격하며 폭발적이다. 고전적 자태를 뽐내는 베토벤 바가텔 1번, 흠뻑려지는 낭만적 리리시즘으로 가득 찬 슈베르트 즉흥곡 4번, 아름다운 서정성과 영롱한 시성으로 가득 찬 쇼팽 발라드 3번은 역사적인 레코딩 가운데 하나로 꼽힐만 하다. (라 무지카 9월호 음악 컬럼니스트 박제성)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

www.lpo.co.uk



LPO-0039 [2 for 1.5]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1번 '겨울의 백일몽', 6번 '비창'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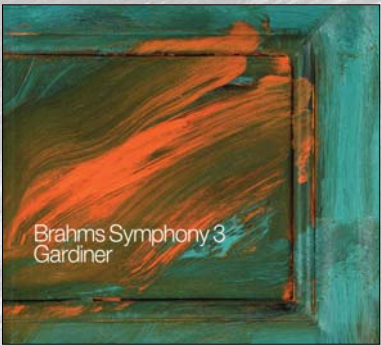
2008년 내한연주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던 런던 필의 뛰어난 가능성과 이들의 젊은 수장인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다시금 만끽하게 되는 음반이다. 각각 2008년 10월 22일(교향곡 1번)과 11월 26일(교향곡 6번) 있었던 액면가 100%의 콘서트 실황들로, 특히 6번 '비창'은 내한연주 때의 감동을 간직하고 있는 애호가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LPO-0041
아일랜드:
피아노협주곡, 런던 서곡, These things shall be 외
에일린 조이스(pf)/ 러턴 코랄 소사이어티/ 애드리언 볼트/
런던 필하모닉

1949년 9월 10일 로열 알버트 홀에서 있었던 작곡가 존 아일랜드의 70번째 생일 기념하는 프롬나드 콘서트 실황. 거장 애드리언 볼트와 런던 필하모닉이 영국 근현대음악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이 작곡가를 축하하였다. 호주 출신의 위대한 여류 피아니스트 에일린 조이스가 독주를 맡은 피아노협주곡, 런던 서곡, 바리톤과 합창을 위한 'These things shall be' 등 작곡가의 대표 관현악 작품들로 프로그램이 꾸려졌다.

SDG를 통해 선보이는 존 엘리엇 가디너의 브람스 교향곡 시리즈 제3탄



SDG 704

*합창음악

운명의 노래, 내니, 하프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의 뿔피리를 불며, 밤순찰 1, 사랑의 슬픔은 단조롭고

존 엘리엇 가디너/ 몬테베르디 합창단/
낭만과 혁명 오케스트라

교향곡 3번은 초연 당시 한스 폰 뷔로가 브람스의 '에로이카'라고 극찬했던 작품으로, 영웅적인 호방함이 돋보이는 1,4악장과 서정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2,3악장이 만들어내는 절묘한 대비효과가 특히 인상적이다. 가디너의 섬세하고도 유려한 연주는 가을에 더할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브람스의 특유의 아련한 서정미를 한층 더 아름답게 풀어내었다. 독일 문학의 양대거봉인 괴테와 실러의 텍스트에 각각 곡을 붙인 '운명의 노래'와 '내니'는 브람스가 위대한 합창음악 작곡가였음을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대작들이다. 하프 반주의 사랑스러운 여성합창곡인 '하프소리가 울려 퍼지고'와 중후한 아카펠라 남성합창곡인 '뿔피리를 불며'의 이야기지기한 매력도 놓칠 수 없다.

BR Klassik

www.br-klassik.de

BR-Klassik은

독일 최정상급의
오케스트라인 바이에른 방송교향
악단(Symphonieorchester de
Bayerischen Rundfunks)를
거느리고 있는 바이에른 방송국
(BR)에서 설립한
자체 레이블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거장
마리스 안손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최신
실황 녹음들을 고품격
Hybrid-SACD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403571900101 [Hybrid-SACD]
말러:
교향곡 7번
마리스 안손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밤의 음악”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독특한 뉘
앙스의 2,4악장이 인상적인 말러의 교향곡 7
번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정교한 개인기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2007년 3월 8/9일 뮌헨 가스타익 필하모니
에서의 실황을 편집수룩한 이 음반은 독일
최정상급 악단으로서의 바이에른 방송교향
악단의 위상을 뚜렷히 보여준다. 미스테리한
이 과작을 일목요연하게 풀어어나가는 안손스
의 해안 역시 출중하다.



403571900100 [Hybrid-SACD]
브루크너:
교향곡 7번
마리스 안손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2007년 11월 4일 빈 무지크페라인에서 있었
던 실황을 옮긴 음반. 브루크너의 가장 아름
다운 교향곡으로 손꼽히는 이 작품을 통해
최근 이 작곡가에 몰입하고 있는 안손스의
열정이 생생하게 전달되어 온다. 안손스가
정성껏 다음어낸 치밀한 디테일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묵직한 울림이 빛어낸 작품
의 장엄한 위용이 멋진 조화를 이룬 쾌연이
다. 1885년 노바크판을 사용하였다.



목자 되신 우리 주/ 저 장미꽃 위의 이슬/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You raise me up

AMC2-099

이재만 리코더 연주곡집:
“Shine”

찬송가에서 CCM까지 세대를 초월한 애창 찬양곡들을
리코더의 밝고 가벼운 음색으로 노래한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찬양음반.
귀에 익은 클래식 선율들을 자연스럽게 삽입한 센스 있는 편곡이 돋보이며, 다양한 음역대의 리
코더들이 만들어내는 청명한 사운드가 너무나 매력적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코더 연주자인 이재만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박쥐'에서 극중 송강호의
리코더 연주장면을 지도했으며, 영화에 삽입된 연주를 직접 맡았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수록곡] 내 진정 사모하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예수가 거느리시니/ 선한



AMC2-101

장대건 3집:
“Azahar 오렌지꽃”

19th Century Guitar Music 19세기 기타 음악들

기타의 본 고장 스페인 Auditorio Municipal "Enrique Granados"에서 녹음한 한국 클래식 기
타계의 든든한 미래인 장대건의 3집 앨범 <Azahar(오렌지꽃)>.
그가 19세기 당대의 악기인 로맨틱 기타로 연주하는 고전 및 낭만 시대의 주옥같은 기타 레퍼토
리들은 기타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AZAHAR / 아사하르**

아사하르란 스페인어로써 오렌지 나무의 꽃이다.
천년이 넘는 세월동안 스페인에서 순수함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인용, 사용되고 있다. 19세기 후
기 고전, 낭만 시대의 음악이 갖는 큰 의미인 순수함 그리고 솔직한 감정의 표현에 어울리는 의미로서 아사하르를 음반 제목으로 하게 되었다.

- [수록곡] Johann Kaspar Mertz 1806-1856
From Bardenklage Op.13
1. Abendlied
2. Tarantelle
3. Liebeslied

4. Elegie

Mauro Giuliani 1781-1829
5. Grande Overture, Op.61

Fernando Sor 1778-1839
6. Menuet Op.11, no.3 Maestoso
7. Menuet Op.11, no.2 Andante Maestoso
8. Menuet Op.11, no.5 Andante

9. Introduction & Variations on a Theme
from "The Magic Flute", O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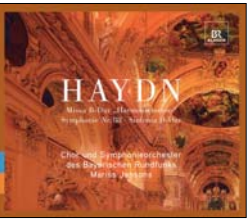
- Franz Schubert 1797-1828
10. Stadchen (Serenade) arr. by J. K. Mertz

Niccolo Paganini 1782-1840
11. Sonata Op.3, No.6

Napoleon Coste 1805-1883
12. La Romanesca, Op.19b
13. Caprice sur L'Air Espagnol "La Cachucha", Op.13

Julian Arcas 1832-1882
14. Fantasy on Themes from "La Traviata"

***Instruments:**
Rene Lacote 1838 copied by Agel Benito in 2008 (track 1-13)
Abel Garcia 1999 (track 14)



403571900102 [Hybrid-SACD]
하이든:
하모니미사, 교향곡 88번, 신포니아
하르텔리우스, 슈미트, 엘즈너, 젤리히
마리스 안손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합창단
작곡가의 서거 200주기를 기리는 안손스의
특별한 하이든 음반. 2008년 10월 유서 깊
은 발트자센 바실리카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
황을 수록한 것으로, 넬슨 미사와 더불어 작
곡가의 대표 미사 작품으로 손꼽히는 하모니
미사와 파리 교향곡 시리즈의 하나인 교향곡
88번, 그리고 오페라 서곡으로 작곡되었지
만, 교향곡 악장들로 수차례 차용되었던 신포
니아 D장조로 프로그램이 알차게 꾸려졌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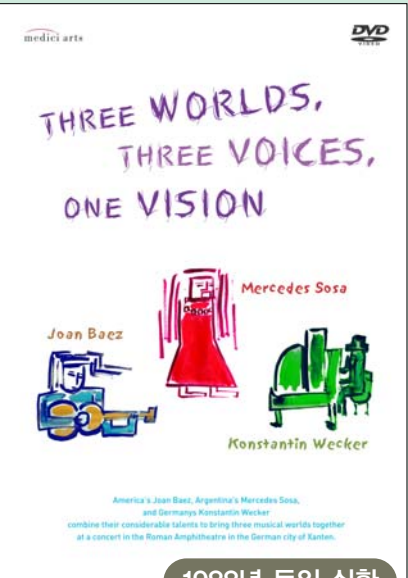


403571900500 [Hybrid-SACD]
마르탱:
복합창을 위한 미사,
코다이:
미사 브레비스 외
페터 디크스트라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남성 보컬 앙상블 The Gents의 리더로 맹
활약했던 페터 디크스트라가 바이에른 방송합
창단의 지휘자로 자리를 옮겼다. 그의 탁월
한 감각을 통해 바이에른 방송합창단은 한층
더 정교한 앙상블로 다듬어졌다. 20세기 아
카펠라 종교합창곡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
는 마르탱의 복합창을 위한 미사, 오르간 반
주의 빼어난 합창곡들인 코다이의 미사 브레
비스와 풀랑의 '검은 성모를 위한 리타니'
등 합창음악의 진수를 담았다.



403571900701 [Normal CD]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1번,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18번
마르트 아르헤리치(pf)
세이지 오자와, 오이겐 요홀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아르헤리치의 화려한 캐리어와 방대한 디스
코그래피에 비해 그가 연주하는 베토벤과 모
차르트의 협주곡을 담은 음반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비록 두 작곡가의 협주곡이 이
여제의 주력 레퍼토리는 아닐지라도 일단 그
가 연주한 성과물들은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
준다. 1983년 7월 17일과(베토벤) 1973년 6
월 22일(모차르트)의 실황녹음들을 담은 이
음반 역시 이를 확실히 증명해준다.

영상으로 만나는 라틴 아메리카의 신화, 메르세데스 소사의 실황 무대
Three Worlds, Three Voices, One Vision



ADVD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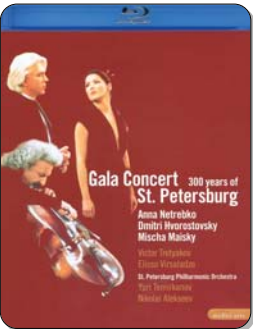
1988년 독일 실황

1. Wieder Dahoam(귀향)
2. Como Pajaros en el Aire(하늘의 새들처럼)
3. Der Himmel Brennt(하늘이 불타오르네)
4. Be Bop Rock
5. Farewell Angelina
6. Ellas Danzan Solas(그녀들은 홀로 춤을 추네)
7. Potpourri: Polleritas(포예리타 메들리)
 - a) Pollerita Coloro(선홍색 치마)
 - b) Carnavalito del Duende(요정의 사육제)
 - c) Pollerita(치마)
8. Wenn der Sommer Nicht Mehr Weit Ist(여름이 멀지 않을 때)
9. Maria, Maria
10. Anna Blume
11. Gracias a la Vida(인생에 대한 감사)
12. Yo Canto Porque Tengo Vida / Ich Singe, Weil Ich Lied Hab(살아있기에 나는 노래하네)

2010년 10월 세상을 떠나며 라틴아메리카의 신화로 남은 메르세데스 소사(Mercedes Sosa)와 모던 포크 음악의 여왕 존 바에즈(Joan Baez), 그리고 독일의 싱어송라이터 콘스탄틴 베커(Konstantin Wecker)가 1988년 독일 크산텐에서 가졌던 실황 무대.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대가들의 의미 있는 만남을 담고 있다. 메르세데스 소사와 존 바에즈가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명곡 'Gracias a la Vida(인생에 대한 감사)'의 무대는 세월의 흐름 속에 쌓인 두 사람의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 큰 감동을 전한다.



medici arts www.euroarts.com



Medici Arts 2053404

상트 페테르부르크 300주년 갈라 콘서트

상트 페테르부르크 300주년(2003년)을 자축하는 매혹의 갈라

러시아 최고의 문화도시이자 '북유럽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물의 도시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그 역사가 길지 않은 편이다. 1703년 표트르 1세가 스웨덴으로부터 탈환하여 요새를 세운 것이 기원이다. 이어 1712년 새로운 수도로서 도시계획에 따른 건설이 진행되었고 '유럽으로 열린 창'이라는 말 그대로 서구문화를 받아들이는 창구가 되었다. 1914년 페트로그라드로 개칭되었다가 1924년 레닌이 죽자 레닌그라드라 불렸는데, 1991년 옛 이름인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되찾았다. 본 영상물은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성립된 지 300주년을 기념하여 이곳의 필하모닉 홀에서 공연된 기념비적인 실황이다. 막 스타의 반열에 올라선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그녀의 파트너로는 매력적인 카리스마의 '시베리아산 호랑이' 드미트리 호보스토프스키가 나선다. 라트비아 출신의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그루지아계의 중견 피아니스트 엘리스 비르살라제도 출연하는 등 범러시아의 음악적 유산이 총집결된 듯 화려한 향연이 펼쳐진다. 마린스키 가극장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 도시를 대표하는 유서 깊은 악단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구 레닌그라드 필)를 유리 테미르카노프와 니콜라이 알렉세예프가 지휘했다.

ARTHAUS MUSIK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1 378

푸치니: 에드가르

놀라운 무대와 호세 쿠라의 열창으로 재탄생한 푸치니의 잊혀진 오페라

푸치니의 오페라는 10개(3부작을 각각으로 보면 12개)에 불과하다. <에드가르>는 31세(1889년)에 작곡한 두 번째 오페라이며 다음 작품 <마농 레스코>부터 성공을 거둔다. <에드가르>는 순결한 여인과 팜므 파탈 사이에서 방황하던 남자가 뒤늦게 진실한 사랑을 찾아 돌아오지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내용인데, 주인공 에드가르는 마치 탄호이저를 연상시키는 캐릭터로서 영웅적 테너에 적합하다. 이 오페라는 초연 당시 4막으로 작곡되었으나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3막으로 개작되었다. 생략된 마지막 막의 몇몇 모티브는 후일 <토스카>에 전용되었다. 자주 공연되지 않지만 어쩌다 무대에 오를 경우도 개정판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던 <에드가르>는 2008년 푸치니 탄생 150주년을 맞아 토리노 가극장에서 109년 만에 4막의 초판본으로 공연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대표하는 드라마틱 테너인 호세 쿠라가 타이틀 롤을 맡아 특유의 극적인 분위기를 제대로 되살려냈다. 원래 중세의 플랑드르 지방을 배경으로 하지만 연출자 로렌초 마리아니는 근대 유럽의 아름다운 전원으로 설정하여 오랫동안 잊혀 있었던 이 작품에 매력적인 뉘앙스를 불어넣었다.



ARTHAUS
M U S I K

www.arthaus-musik.com



DVBD-OPFORZA

바그너: 지크프리트

오니 반 할(지크프리트), 프리더 아우리호(미메), 토마스 뢰베스(보탄), 히데카즈 츠마야(파프너), 캐서린 포스터(브륄힐데) 외/ 칼 세인트 클레어/ 바이마르 슈타츠허펠레

시공을 초월한 독특한 배경 위로 펼쳐지는 영웅 지크프리트의 성장 드라마

바그너는 1840년대 초반부터 북구와 튜튼 신화에 몰입하였고, 이를 토대로 서사극을 완성할 것을 결심하였다. '지크프리트의 죽음'이라는 하나의 오페라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시작했지만, 4개의 오페라로 이어지는 '니벨룽의 반지'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확대되었다. '지크프리트'는 4부작의 세 번째 작품으로 천방지축의 소년 지크프리트가 신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영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다룬 일종의 성장드라마와 같은 작품이다. 많은 화제를 낳으며 바이마르 국립오페라의 저력을 과시했던 미카엘 술츠의 이 프로덕션은 여러 참신한 시도로 이 거작을 재조명하였다. 보통 미메와 지크프리트의 2인극으로 전개되는 1막에서 술츠는 파프너, 알베리히, 하겐, 보탄 등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함께 무대에 올려 이야기의 배경을 시각적으로 함께 설명해주며, 돈너, 프로, 로게 역시 마음을 통해 극의 전개에 한 몫을 한다. '라인골트'에서 보탄과 알베리히를 맡았던 두 가수의 역할을 이 작품에서 맞바꿈으로써 일종의 역할극이라는 자신의 콘셉트를 지속시켜 나가며, 보모와 같은 모습으로 의인화된 브륄힐데의 말 그라네와 숲속의 새에 대한 해석적 역시 신선하다.

바그너: 신들의 황혼

노베르트 슈미트베르크(지크프리트), 캐서린 포스터(브륄힐데), 레나투스 메사르(하겐), 마리오 호프(군터), 마리에타 춤빌트(군트루네) 외/ 칼 세인트 클레어/ 바이마르 슈타츠허펠레

바이마르 링 사이클의 대미를 장식하는 역작

바흐, 괴테와 실러, 그리고 리스트와 바그너를 품었던 중부 독일의 문화도시 바이마르. 2008년 바이마르 슈타츠허펠레에서 완결되었던 미카엘 술츠 연출의 바그너 '링' 사이클은 이 도시의 든든한 문화적 저력을 다시금 드러내었던 화제의 공연이었다. 4부작의 대미를 장식하는 '신들의 황혼'은 그 자체만으로도 5시간에 가까운 연주시간을 필요로 하는 대작으로, 서막의 지크프리트와 브륄힐데의 이중창, 서막과 1막 사이의 간주곡인 '지크프리트의 라인여행', 2막의 하겐과 병사들의 합창, 3막의 지크프리트의 죽음과 장송행진곡, 그리고 오페라 역사상 가장 장대한 모놀로그로 손꼽히는 브륄힐데의 화생 장면과 같은 명장면들이 곳곳에 삽입되어 있다. 술츠는 미니멀한 무대 배경 위로 가수들의 적극적인 연기를 통해 이 대작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해내었다. 보모와 같은 모습으로 의인화된 애마 그라네가 앞서 작품들에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극의 전개에 참여하는 점이 인상적이며, 브륄힐데를 노래한 캐서린 포스터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이 돋보인다.

베르디: 운명의 힘

《운명의 힘》은 베르디 중기의 걸작이다. 러시아 황실가극장의 의뢰로 작곡되어 그곳에서 초연되었다는 진기한 기록도 갖고 있다. 제목에서 풍기는 인상답게 베르디의 모든 작품 중에서도 가장 음산한 분위기를 담고 있는데, 세 남녀의 인생을 비극으로 내모는 운명의 잔인한 힘을 그려낸다. 그 운명은 모두 우연한 총기 오발 사고, 마주침, 우정에서 비롯된다. 제목의 의미를 풀어쓴다면 '잔혹한 우연의 연속'이라고 할까? 본 DVD는 2007년 피렌체 코무날레 극장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을 담은 것으로, 알토에서 현존 최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의 한 사람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비올레타 우르마나가 여주인공 레오노라로 열연하였으며, 작품의 극적인 박력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주빈 메타의 노련한 지휘가 더해졌다.



DVBD-OPFORZA



OPUS ARTE

www.opusarte.com



OpusArte OABD 7039D
[2 Disc]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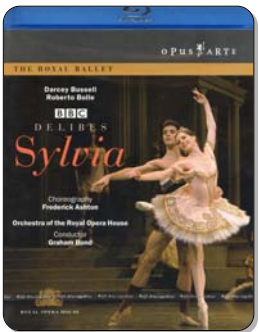
21세기 대표 이졸데, 니나 슈템메의 열창과 자궁같은 무대의 결합

스웨덴 소프라노 니나 슈템메는 젊은 시절부터 많은 연주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작품을 가려가며 착실하게 커리어를 쌓아왔다. 그러더니 사십대에 접어들면서 어느새 바그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야나체크 등 근대 오페라에서 전세계 모든 일류 극장이 출연을 요청하는, 그러나 쉽게 섭외되지 않는 최고의 스타로 등극했다. 슈템메는 우아한 자태, 깊고 투명한 음색, 지적인 표현력을 모두 갖춘 대가수로서 최근에는 베르디 오페라에서도 좋은 평을 얻고 있다. 연출가 니콜라우스 렌호프와 무대장치가 올란드 에셀 리만은 4시간에 이르는 이 긴가긴 오페라의 무대를 자궁, 혹은 새장을 연상시키는 타원형의 검은 색 구조물로 고정시켰다. 원초적 공간, 폐쇄적 공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섬세한 동선과 연기, 조명의 힘으로 집중력을 배가시켰다. 렌호프는 특히 이 작품을 '빛의 드라마'로 정의하고 있다. 덕분에 음악의 비중이 더욱 힘을 얻었다는 것이 이 프로덕션의 특징이다. 2007년 8월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최신 실황. 체코의 지리 벨로라 백이 지휘를 맡았고 드라마틱 테너로 변신한 로버트 갬빌(트리스탄)을 비롯하여 보 스코부스(쿠르베날), 르네 파페(마르케 왕) 등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초호화 출연진이 나선 화제의 공연이다.

들리브: 실비아

영국이 사랑하는 국민 발레리나, 다르시 버셀의 매력에 빠져들다!

그리스 신화의 요정 실비아와 목동 아민타가 주인공인 목가적 발레 《실비아》는 《코펠리아》를 작곡한 레오 들리브의 음악을 사용하여 1876년 파리에서 초연되었다. 그러나 차이코프스키가 높이 평가했다는 걸출한 음악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대본과 평범한 안무 탓에 걸작으로 대접받지 못한다. 그러다가 1952년에 이르러 서야 영국의 안무가 프레데릭 애쉬튼에 의해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받았다. 그동안 애쉬튼의 《실비아》는 상연용 영상물이 없었는데, 그가 평생을 바친 로열 발레의 2005년 최신 실황으로 발매되었다. 실비아 역에 영국의 국민적 발레리나 다르시 버셀이 나선 점은 흥미를 배가시킨다. 버셀은 절정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2007년 6월 로열 발레에서 은퇴한 대스타다. 앞으로는 보다 자유로운 신분으로 공연계에 기여할 것이라 한다. 이 영상물에 구현된 우아한 자태, 어려운 동작을 편안하게 처리하는 테크닉과 풍부한 연륜은 왜 그녀가 진정한 스타인지 확인하게 한다. 상대역인 로베르토 볼레는 이탈리아 라 스칼라 발레 소속의 미남 발레리노로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로열 발레 창단 75주년을 기념하여 펼쳐진 공연답게 아름답고 호화 찬란한 무대와 의상은 물론 화질과 음질도 최고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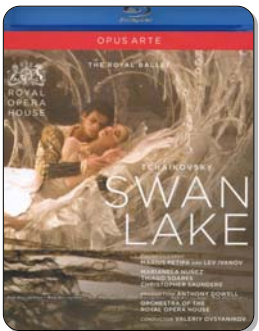


OpusArte OABD 7047D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발레스타의 새로운 산신, 남미 출신 두 주역이 펼치는 <백조의 호수>

영국을 대표하는 로열 발레의 주역을 거의 외국인이 차지한 지는 꽤 된다. 물론 로열 발레는 프레데릭 애쉬튼, 케네스 맥밀란, 피터 라이트 등에 의한 전형적인 영국 스타일의 프로덕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유의 전통을 갖고 있지만 다양한 국적의 무용수들이 새로운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발레단의 색깔에도 점차 변화가 일고 있다. 최근에는 남미 출신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를 대표하는 이가 아르헨티나 출신의 발레리나 마리아벨라 누네즈와 브라질 출신의 발레리노 티아고 소아레스즈다. 두 사람의 콤피는 코벤트가든에서 대단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 2009년 3월에 있었던 최신 <백조의 호수>가 여기 소개된다. 더욱이 재일동포 출신의 한국인 발레리나로 최근 몇 차례 주역을 맡기도 한 최윤희가 1막의 일련의 파도 트루아에서 대단히 뛰어난 춤을 선보인다. <백조의 호수>는 두말할 나위 없는 고전발레의 최고봉이다. 마리우스 프티파와 레프 이바노프의 오리지널 안무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수많은 형태가 존재하는데, 본 영상물은 로열 발레의 스타 무용수 출신이며 그 예술감독을 역임한 앤소니 도웰 프로덕션이다. 특히 19세기 스타일을 감안한 백조 군무의 의상이 무척 인상적이다.



OpusArte OABD 7042D



Opus ARTE www.opusarte.com

꼭 닦은 두 영혼



OpusArte OABD 7043D

팝스타 스틱 부부가 로베르트 슈만 부부의 음악과 사랑을 돌아보다

이 영상물은 위대한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과 그의 아내이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의 깊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비극이었던 사랑을 바로 코앞에 펼쳐지는 듯한 라이브로 공연한 실황이다. 일반적인 음악공연이 아니라 편지 낭송과 연주, 그리고 해설이 결합된 아주 독특한 형태인데, 이를 통해 우리는 슈만 부부의 행복과 좌절,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에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된다. 특이한 점은 팝스타 스틱이 클라라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는 슈만 역을 맡았다는 점이다. 그는 '파바로티와 친구들'에서 '생명의 양식'을 부른 것으로 알 수 있듯이 클래식 음악계와 친밀한 인물이다. 스틱의 아내인 여배우 트루디 스타일러는 클라라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를 읽는다. 연주자로는 사이먼 킨리사이드(바리톤)와 레베카 에반즈(소프라노), 세르게이 크렐로프(바이올린), 나탈리 클라인(첼로), 이예인 번사이드, 나타샤 파렘스키(이상 피아노)가 나섰다. 영국의 원로배우 데렉 아코비는 내레이션을 맡아 전체적인 스토리를 엮는다. 연출가이자 작가인 존 케어드에 구상한 이 프로젝트는 2005년 로열 오페라하우스에서 초연되었고 본 영상물은 2007년 12월에 재연된 것이다.

퍼셀: 디도와 에네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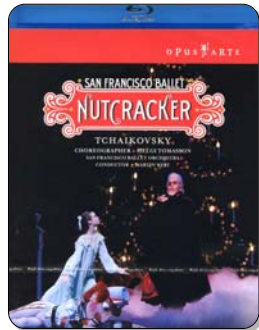


OpusArte OABD 7049D

로열 오페라와 로열 발레가 힘을 합쳐 퍼셀 탄생 350주년을 기린다

요절한 천재 헨리 퍼셀(1659~1695)은 영국 음악사의 영웅이다. 그가 남긴 다방면의 작품 가운데 최고의 걸작은 영어 오페라 <디도와 에네아스>인데, 2009년 퍼셀 탄생 350주년을 맞아 로열 오페라와 로열 발레가 힘을 합쳐 런던의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하우스에서 이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총곡이 풍부하게 삽입되어 안무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오페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연출을 맡은 웨인 맥그리거 역시 영국이 자랑하는 젊은 안무가이다. <디도와 에네아스>는 멸망한 카르타고의 왕자 에네아스가 주피터의 신탁을 받아 이탈리아로 향하던 도중에 풍랑을 만나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 표착했다가 그곳의 여왕 디도와 사랑에 빠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재차 이탈리아로 떠나야 하기에 비탄에 빠진 디도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퍼셀은 이 고전적 비극에 풍부한 대조효과를 불어넣어 4세기 전의 극음악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효과를 얻어냈다. 바로크 음악의 권위자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계몽시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메조소프라노 사라 코놀리와 비리톤 루카스 미침이 비극적인 두 주인공을 노래한다. 루시 크로우(시너 벨린다), 사라 풀고니(마녀)도 주역에 못지않은 눈부신 조역이다.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OpusArte OABD 7044D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 - 샌프란시스코 발레의 경이로운 실황

<호두까기 인형>은 뉴욕 시티 발레의 조지 발란신 이 크리스마스 가족 발레라는 개념을 명확히 한 이래 지난 50년간 세계 대부분의 발레단이 12월이면 항상 공연하는 최고의 흥행작이 되었다. 또한 발레단마다 조금씩 다른 고유의 프로덕션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뉴욕의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와 함께 미국 발레계를 양분하는 미국 서부 최고의 무용단인 샌프란시스코 발레는 현재 예술감독 헬기 토마스의 새로운 프로덕션을 2004년 12월에 선보였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호두까기 인형> 역사상 가장 호화찬란한 걸작에 속한다는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본 DVD는 그 프로덕션을 2007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와 발레단의 본거지인 전쟁기념관에서 공연한 최신 실황이다. 화려한 무대와 의상, 풍부한 주역급 무용수들의 향연일 뿐 아니라 영상물로서의 가치도 웬만한 영화보다 뛰어난 화질을 자랑한다. 중국 발레의 실력을 세계에 알린 일등공신인 동 발레단의 대표적 스타 유안유안 텐은 눈송이 춤의 여왕으로 출연하며, 아르메니아 출신의 발레리노 다비트 카라페티안은 경이적인 힘과 테크닉으로 호두까기 왕자를 춤춘다.



Opus ARTE www.opusarte.com

베르디: 오텔로



OpusArte OABD 7041D

델 모나코와 도밍고를 잇는 최고의 오텔로 호세 쿠라의 놀라운 열연

베르디 만년의 걸작 <오텔로>는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오페라화한 것으로 목격한 남성 오페라의 걸작이다. 특히 그 타이틀 롤은 음악적으로는 물론 극적으로도 대단한 난역이기 때문에 '한시대마다 단 한명의 오텔로만이 존재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이다. 그리하여 20세기 오텔로의 계보는 조반니 마르티넬리, 마리오 델 모나코, 그리고 1970년대 중반이후의 플라시도 도밍고로 대표되어왔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오텔로는 누구냐 이구동성으로 아르헨티나의 드라마틱 테너 호세 쿠라를 첫 손에 꼽는다. 드디어 그의 첫 <오텔로> 영상물인 2006년 2월의 바르셀로나 리세우 대극장 실황이 여기 소개된다. 과연 호세 쿠라는 특유의 숙련된 음성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오텔로의 내면적인 고통을 드러내 보인다. 최근 일련의 놀라운 영상물들로 우리를 놀라게 한 빌리 데커의 연출도 훌륭하다. 주역 세 사람에게 더욱 초점을 맞춘 가운데 무대장치는 술수와 질투에 말려드는 인간의 좁은 내면과 원색적 감정을 잘 들어냈다. 영상으로는 처음 소개되는 불가리아 소프라노 크라시미라 스토야노바(데스데모나)와 그루지아 바리톤 라도 아타넬리(이아고)도 대단히 뛰어나다.

스트라빈스키: 탕아 행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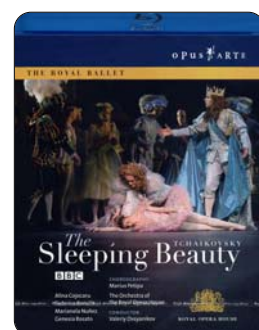


OpusArte OABD 7038D

18세기 런던의 타락상을 1950년대 라스베이거스로 옮긴 경이적인 무대

<탕아 행각>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20세기 최고의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1951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한 현대 오페라의 걸작이다. 18세기 영국의 풍속화가 윌리엄 호거스의 그림에서 착상한 영어 대본을 사용했으며 원작의 무대는 18세기 영국의 런던이다. 본 영상물은 2007년 4월, 벨기에의 왕립극장인 브뤼셀의 모네 극장 실황을 담았다. 죄로 가득한 18세기의 런던은 TV 방송의 초기 시절인 1950년대의 라스베이거스의 이미지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시각적으로 워낙 인상적인 무대를 꾸미는 것으로 인기가 높은 캐나다 퀘벡 출신의 로베르 리바주가 연출을 맡았고, 칼 필리온의 무대장치와 프랑수아 바르보의 의상은 놀라운 정도로 작품과 잘 어울린다. 여기에 모네 가극장의 새로운 예술감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일본 출신의 오노 가즈시가 스트라빈스키 음악에 극적인 생동감을 불어 넣었다. 젊은 가수들의 생생한 연기와 노래도 훌륭하지만 특히 무대 구성이란 측면에서는 역사상 최고 영상물의 하나로 꼽아도 좋을 만한 소중한 자료다.

발레: 잠자는 미녀



OpusArte OABD 7037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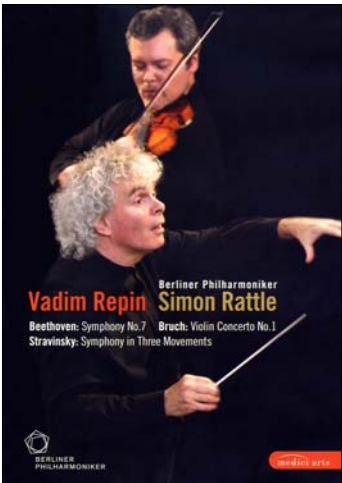
로열 발레의 최고의 스타, 알리나 코조카루의 첫 전막발레 영상물

루마니아 출신의 알리나 코조카루는 영국의 로열 발레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발레리나다. 특히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가 아니라 관객들이 마치 여동생을 대하듯 좋아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영상물로 만나기는 힘들었다. 대스타가 되기 이전에 <호두까기 인형>에 클라라로 출연한 것이 있었지만, 클라라에게 춤을 별로 주어지지 않은 프로덕션이었다. 게다가 로열 발레 경영진이 공연 실황을 상업용으로 발매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바람에 최신 실황들이 소개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로열 오페라와 발레를 거느린 코벤트가든이 DVD의 중요한 제작사인 Opus & Arte를 인수하고 그간 BBC방송용으로 촬영한 자료에서 엄선된 실황들을 발매하면서 드디어 코조카루의 춤도 우리 안방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잠자는 미녀>가 선택된 것은 더욱 의미 있다. 차이코프스키 작곡, 마리우스 피티파 안무의 이 발레는 고전발레의 교과서라 불릴 만큼 발레의 전형을 가장 고품격으로 구현하기 때문이다. 코조카루는 오로라 공주 역을 맡아 어린 소녀의 발랄함(1막), 왕자의 환상 속의 우아한 여인(2막), 결혼식 신부(3막)까지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Medici Arts DVD

Medici Arts는 EuroArts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www.euroarts.com



Medici Arts DVD 2056978

베를린 필 2008 유러피언 콘서트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베토벤: 교향곡 7번/ 스트라빈스키: 3악장 교향곡
바딤 레핀(바이올린)/ 사이먼 래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딤 레핀과 사이먼 래틀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
2009년 클래식 애호가들을 열광케 만들 가장 강력한 블록버스터급 DVD가 등장하였다. 매년 5월 1일 유럽 각지의 명승지를 찾아서 펼쳐지는 유러피안 콘서트는 발트워네 콘서트와 더불어 베를린 필을 대표하는 양대 이벤트로 수많은 음악애호가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모스크바의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콘서트홀에서 펼쳐졌던 2008년 유러피안 콘서트는 2019/20 시즌까지 임기를 연장하면서 베를린 필 단원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음악감독 사이먼 래틀이 직접 지휘봉을 잡았다. 러시아가 배출한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이 가장 인기 있는 로맨틱 바이올린 협주곡의 하나인 브루흐의 협주곡 1번을 통해 자신의 뛰어난 기량과 풍부한 서정을 맘껏 펼쳐 보이며, 스트라빈스키의 3악장 교향곡과 베토벤 교향곡 7번에서는 베를린 필 단원들의 뛰어난 기능성과 정밀한 합주력, 그리고 타악기 주자를 처음 음악계에 입문했던 래틀의 천부적인 리듬 감각이 찬연히 빛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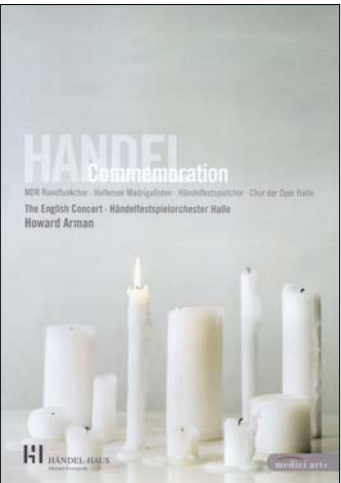


Medici Arts DVD 2072198

슈베르트: 교향곡 9번 ‘그레이트’(리허설과 콘서트)

칼 뵘/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 칼 뵘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생생하게 기록한 영상물
만년의 사진들을 통해 느껴지는 마에스트로 칼 뵘의 이미지는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이웃 할아버지와도 같은 인상이지만, 전성기 시절의 그는 뜨거운 열정과 날카로운 직관으로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단숨에 장악하는 강력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였다. 1966년 빈 심포니와 함께 했던 이 역사적인 영상물은 하나의 음악을 완벽하게 다듬어 나가는 마에스트로의 투철한 장인정신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은 브람스를 넘어서 브루크너를 예비하는 듯한 웅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작품으로, 이 작품에 대한 뵘의 애정은 각별한 것이었다. 본 흑백 영상물은 약 70분 정도의 리허설 장면과 50분 정도의 전국 연주장면(촬영을 목적으로 한 비공개 연주)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지휘자와 악단이 함께 작품을 다듬어가는 리허설 과정과 실제의 연주를 비교해볼 수 있는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Medici Arts DVD 2057458

헨델: 기념 콘서트
대관식 앤섬 ‘제사장 사독’, 데팅겐 테 데움,
캐롤라인 왕비의 장송 앤섬, 에스더, 사울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발체 외
MDR 방송합창단, 할렌저 마드리갈리슈텐, 헨델페스티벌 합창단, 할레 오페라 합창단/
하워드 어만/ 잉글리시 콘서트/ 할레 헨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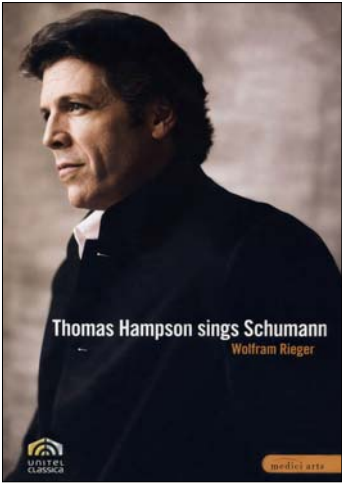
작곡가의 서거 250주기를 기념하는 성대한 헨델 기념 콘서트
2009년은 헨델의 서거 250주기가 되는 해다. 작곡가의 고향 할레에서 펼쳐지는 헨델 페스티벌 역시 뜻 깊은 해를 맞아서 특별한 콘서트로 이 작곡가를 기념하였다. 본 DVD는 2009년 4월 헨델이 세례를 받았던 역사적인 장소인 할레의 마르크트 교회에서 펼쳐졌던 이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에스더’, ‘사울’, ‘이집트의 이스라엘인’과 같은 오라토리오들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대관식 앤섬’, ‘데팅겐 테 데움’, ‘위트레흐트 조약을 위한 주빌라테’와 같은 작곡가의 대표 합창곡들로 구성된 본 콘서트의 프로그램은 1784년 런던 웨스트민스터사원에서 있었던 헨델 추모 콘서트 당시에 연주되었던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영국을 대표하는 시대악기 연주단체인 잉글리시 콘서트가 헨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조인트 앙상블을 구성하였고, 네 개의 합창단이 연합한 대규모 합창단이 참여하여 이 특별한 콘서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었다.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교수이자 헨델 상을 수상한 영국출신의 바로크 전문 지휘자인 하워드 어만이 지휘봉을 잡았다.



Medici Arts DVD 2072428

무소르그스키: 호반시치나

무소르그스키의 미완성 역사오페라, 시공을 초월한 보편성을 획득하다
러시아의 동토(凍土)를 연상시키는 ‘위대한 아마추어’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의 〈호반시치나〉는 5막 6장의 거대한 오페라로서, 9년간의 작업에도 결국 완성을 보지 못하여 친구 림스키코르사코프가 마무리했다. 줄거리의 골격은 표트르 대제 시대를 배경으로 세 파벌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다. 하나는 표트르 황제와 황후를 섬기는 서구주의자 개혁파로서 그 중요인물은 골리친 왕자다. 또 하나는 개혁에 반대하는 슬라브를 편드는 일파로서 이반과 안드레이 호반스키 부자가 지도한다. 마지막은 러시아 정교회 분리파 파벌인데, 그들의 눈에는 표트르가 반 그리스도로 비쳐 개혁에 반대한다. 사제 도시페이가 이들을 지도하며, 안드레이 호반스키를 사랑하지만 그에게 버림받은 마르파도 분리파에 속해있다.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은 것은 무소르그스키 오페라의 일반적 특징이다. 서사적인 오페라인 탓이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오페라 연출가로 서구에서도 환영받고 있는 드미트리 체르니야코프는 이 작품을 그리스 연극이나 셰익스피어의 극과 같은 보편적 고전으로 파악했다. 열정에 따라 움직이면서 권력을 쫓는 인간군상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켄트 나가노가 지휘를 맡은 2007년 여름 뮌헨의 바이에른 국립 가극장 실황이며 스트라빈스키, 쇼스타코비치가 개정한 판본을 사용했다.



Medici Arts DVD 2072508

토마스 햄슨이 부르는 슈만

토마스 햄슨이 부르는 〈시인의 사랑〉 초판본! 4곡이나 더 많다!

1840년, 30세의 로베르트 슈만은 우여곡절 끝에 9살 연하의 아름다운 피아니스트 클라라 비크와 결혼한다. 이 해는 가곡의 해로 불리며 사랑을 찬미하는 수많은 명작 리트가 탄생했는데, 그중에서도 백미는 연가곡 〈시인의 사랑〉일 것이다. 비록 환희가 절망으로 사그라지는 비통한 엔딩이지만 이는 독일 낭만주의의 전통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런데 16곡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연가곡이 처음엔 20곡으로 작곡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미 음반(EMI)을 통해 그 초판본을 소개한 바 있는 미국의 바리톤 토마스 햄슨은 리사이틀에서도 오리지널 악보를 선택하고 있는데, 본 영상물은 2007년 12월 뮌헨에서 있었던 실황을 담았다. 지극히 아름다운 미성의 바리톤인 토마스 햄슨은 시의 흐름을 완벽히 반영하여 사랑의 고통 속에 점점 소멸해버리는 한 남자의 고통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또한 청감상으로는 물론 실제로도 바리톤으로는 무척 높은 음역대를 지닌 가수답게 한편으론 테너가 부르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시인의 유약한 측면을 잘 그려내고 있다. 〈시인의 사랑〉과 같은 해에 작곡된 ‘케르너에 의한 12개의 시’가 커팅된 되었으며 볼프람 리거가 섬세한 피아노 반주를 들려준다.

[보충자료]

○ 바리톤 토머스 햄슨은 1955년 6월, 미국 인디애나에서 태어난 전후 세대로서 미국 바리톤의 계보를 잇는 대표주자다. 비교적 늦게 성악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무척 학구적으로 모든 일에 임하는 완벽주의자의 면모를 갖고 있어서 어떤 극장에서도 환영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성공 가도에는 여러 지휘자가 큰 기여를 했는데, 우선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는 1984년 취리히의 모차르트 사이클을 시작으로 풍부한 오페라 무대 경험을 쌓게 해 주었고, 만년의 레너드 번스타인은 자신의 말려 연주회에 이 젊은 바리톤을 자주 초청하여 이름을 알렸다. 리트의 본바닥 독일로 건너가 그 최고 권위자인 호르스트 쿤터와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를 사사한 것도 특이하다. 미국 바리톤이라면 오페라가 훨씬 손쉬운 길인데도 어려운 길로 돌아간 것이다.

○ 햄슨의 소리와 창법은 바리톤 중에서 특이한 편이다. 우선 그 테시투라(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음역대)가 높은 편이고 소리결이 고와서 ‘하이 바리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커다란 성량이나 묵직한 저음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놀랄 만한 부드러움과 귀족적인 품격으로 청자와 정서적인 교감을 이루어낸다. 특히 슈베르트, 슈만의 리트를 노래하는 것을 들어보면 테너나 구사할 법한 높은 음역과 놀라운 테크닉의 메차 보체(약음)을 총칭으로 구사하는 실력과 그 미성에 놀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50대에 중반에 이르렀건만 아직도 젊다는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다.



Opus Arte DVD OA1013D

탄둔: 페이퍼 콘체르토 (紙樂)

하루카 후지이(페이퍼퍼커션)/ 탄둔/ 로얄 스톡홀름 필하모닉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인 종이지만, 탄둔은 이 종이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느낌의 소리를 통해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 내었다. 종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뜨린 탄둔의 놀라운 창의성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2003년 LA 필의 새로운 본거지인 월트디즈니 홀의 개관을 기념하여 위촉된 작품으로, 그의 유기체 음악 3부작(워터콘체르토, 페이퍼콘체르토, 세라믹콘체르토)의 두 번째 작품에 해당한다. 입김을 불어 만드는 종이의 떨리는 소리, 종이 꽃술의 흔들리는 소리, 다양한 크기의 종이상자들로 구성된 종이 드럼의 두드림 소리, 그리고 무대 위에 길게 늘어진 족자와 같은 형태의 종이를 흔들어 떨어지는 소리 등등 탄둔은 종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소리를 이 작품 곳곳에 적절히 배치하였다. 종이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운드가 접목된 청각적인 놀라움도 대단하지만,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타악기 주자 하루카 후지이가 다양한 종이 타악기들을 연주하는 모습 그 자체로도 멋진 행위예술을 보는 듯하다. 탄둔은 영화 ‘와호장룡’의 OST로 아카데미 음악상과 그래미상 OST 부문을 석권하면서 세계적인 작곡가로 이름을 떨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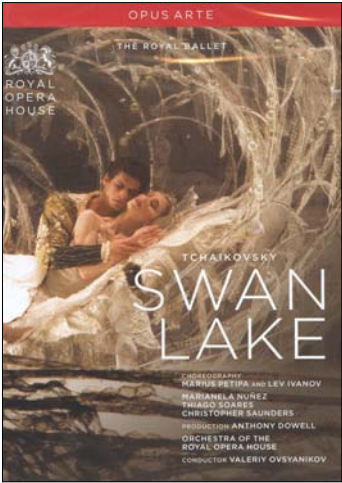


Opus Arte DVD OA1014D

탄둔: 워터 콘체르토 (水樂)

데이비드 코진(워터퍼커션)/ 탄둔/ 로얄 스톡홀름 필하모닉

영화 ‘와호장룡’의 OST로 아카데미 음악상과 그래미상 OST 부문을 석권하면서 세계적인 지명도를 얻었던 중국 출신의 작곡가 탄둔은 이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행사음악과 YouTube site와의 공동 프로젝트인 YouTube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위한 인터넷 교향곡 등을 통해 큰 화제를 몰고 왔던 장본인이다. 중국 후난성 장사에서 태어난 탄둔은 동양음악과 서양음악의 접목을 넘어서서 음악에 자연의 소리를 더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구축했던 작곡가다. 어려서 중국 무속인들이 돌이나 물과 같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음악을 만드는 것에 매료되었던 이 작곡가는 후일 유기체음악 삼부작(워터콘체르토, 페이퍼콘체르토, 세라믹콘체르토)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이상을 실천에 옮겼다. 워터콘체르토는 1998년 뉴욕 필하모닉으로부터 위촉받은 작품으로, 물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운드를 음악 속에 접목시켜놓은 독특한 형식의 작품이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물에 손을 침방이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물 함자박을 두드리는 소리 등등 물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타악기들이 연주에 동원되며, 데이비드 코진을 비롯한 세 타악기 솔리스트들의 연주 장면 그 자체로도 멋진 볼거리를 만들어낸다.



Opus Arte DVD OA1015D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발레스타의 새로운 산실, 남미 출신 두 주역이 펼치는 <백조의 호수>

영국을 대표하는 로열 발레의 주역을 거의 외국인이 차지한 지는 꽤 된다. 물론 로열 발레는 프레데릭 애쉬튼, 케네스 맥밀란, 피터 라이트 등에 의한 전형적인 영국 스타일의 프로덕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유의 전통을 잇고 있지만 다양한 국적의 무용수들이 새로운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발레단의 색깔에도 점차 변화가 일고 있다. 최근에는 남미 출신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를 대표하는 이가 아르헨티나 출신의 발레리나 마리아넬라 누녜즈와 브라질 출신의 발레리노 티아고 소아레스다. 두 사람의 콤비는 코벤트가든에서 대단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 2009년 3월에 있었던 최신 <백조의 호수>가 여기 소개된다. 더욱이 재일동포 출신의 한국인 발레리나로 최근 몇 차례 주역을 맡기도 한 최윤희가 1막의 일련의 파 드 트루아에서 대단히 뛰어난 춤을 선보인다. <백조의 호수>는 두말할 나위 없는 고전발레의 최고봉이다. 마리우스 프티파와 레프 이바노프의 오리지널 안무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수많은 형태가 존재하는데, 본 영상물은 로열 발레의 스타 무용수 출신이며 그 예술감독을 역임한 앤소니 도웰 프로덕션이다. 특히 19세기 스타일을 감안한 백조 군무의 의상이 무척 인상적이다.

[보충자료]

○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백조의 호수>는 1877년 초연에서 참담한 실패를 거두었고 작곡가 사후에 러시아 고전발레의 최고봉인 마리우스 프티파와 그의 조수 레프 이바노프가 재안무하여 크게 성공했다. 비현실적인 세계를 동경하는 낭만주의적 이상의 산물인 호숫가 장면은 이바노프가, 화려한 궁전 장면은 프티파가 안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발레는 서유럽에서 인기를 끈 최초의 러시아 발레이기도 하며 특히 주로 로열 발레를 통해 서구에 보급된 역사를 갖고 있다. 로열 발레 프로덕션에는 프레데릭 애쉬튼, 피터 라이트, 데이비드 빈틀리 등 영국 안무계의 대가들이 손 댄 자국이 남아있다.

○ 1막의 파 드 트루아에 출연한 최윤희는 재일교포 출신이며 2008년 연말에 처음으로 주역에 발탁되어 <호두까기 인형>을 추었다. 2009년에는 발레리나들이 가장 선망하는 역의 하나인 <라 바아데르>의 니키아 역에 캐스팅됨으로서 로열 발레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는데, 당시 영국 언론에서는 “눈을 땔 수 없게 만드는 춤”이라고 호평했다.



Opus Arte DVD OA0994D

꼭 읽은 두 영혼

팝스타 스팅 부부가 로베르트 슈만 부부의 음악과 사랑을 돌아보다

이 영상물은 위대한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과 그의 아내이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의 깊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비극이었던 사랑을 바로 코앞에 펼쳐지는 듯한 라이브로 공연한 실황이다. 일반적인 음악공연이 아니라 편지 낭송과 연주, 그리고 해설이 결합된 아주 독특한 형태인데, 이를 통해 우리는 슈만 부부의 행복과 좌절,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에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된다. 특이한 점은 팝스타 스팅이 클라라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는 슈만 역을 맡았다는 점이다. 그는 ‘파바로티와 친구들’에서 ‘생명의 양식’을 부른 것으로 알 수 있듯이 클래식 음악계와 친밀한 인물이다. 스팅의 아내인 여배우 트루디 스타일러는 클라라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를 읽는다. 연주자로는 사이먼 킨리사이드(바리톤)와 레베카 에반즈(소프라노), 세르게이 크릴로프(바이올린), 나탈리 클라인(첼로), 이에인 번사이드, 나타샤 파렘스키(이상 피아노)가 나섰다. 영국의 원로 배우 데렉 야코비는 내레이션을 맡아 전체적인 스토리를 엮는다. 연출가이자 작가인 존 케어드에 구상한 이 프로젝트는 2005년 로열 오페라하우스에서 초연되었고 본 영상물은 2007년 12월에 재연된 것이다..

[보충자료]

○ 슈만은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전통에서 멘델스존과 더불어 베토벤과 슈베르트는 잇는, 그리고 브람스로 이어지는 정통계보의 한가운데에 있다. 본질적으로 피아니스트였으므로 피아노 독주곡, 피아노의 역할이 중요한 리트에 주력했지만 비교적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했으며, 글레주와 리더십이 있어서 독일음악계를 이끄는 멘토 역할을 했다. 또한 아내 클라라와의 사랑은 음악사에서 가장 널리 회자되는 러브스토리가기도 하다. 초비카우에서 태어난 슈만은 라이프치히에서 억지로 법률을 공부하다가 피아니스트를 지망하지만 오른쪽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작곡으로 길을 바꾸었다. 1834년(24세)에는 <음악신보>라는 잡지를 창간하고 음악평론에도 열정을 쏟았다. 그는 자주 플로레스탄과 에우제비우스라는 가명으로 글을 썼다. 이 가상의 두 인물은 역시 가상의 단체인 ‘다비드 동맹’을 이끄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그 목표는 음악적 숙물주의를 타파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의 입을 통해 슈만은 음악적 엑스터시와 감수성을 강조하는 논지를 펼쳤다. 슈만은 스승의 딸이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9살 연하의 클라라와 그녀 집안의 극심한 반대를 뚫고 결혼했다. 그러나 1843년(33세)부터 신경쇠약과 우울증이 본격화되었다. 부부는 드레스덴으로 이사하여 1845년부터 6년간 다시 왕성한 창작기를 보낸다. 그러나 1854년에는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병세가 다시 악화되는 바람에 본 근교의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 슈만은 1856년 7월 이곳에서 최후를 맞았다.



Opus Arte DVD OA1018D

퍼셀: 디도와 에네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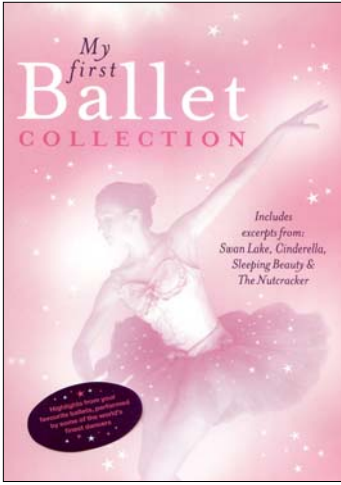
로열 오페라와 로열 발레가 힘을 합쳐 퍼셀 탄생 350주년을 기리다

요절한 천재 헨리 퍼셀(1659~1695)은 영국 음악사의 영웅이다. 그가 남긴 다방면의 작품 가운데 최고의 걸작은 영어 오페라 〈디도와 에네아스〉인데, 2009년 퍼셀 탄생 350주년을 맞아 로열 오페라와 로열 발레가 힘을 합쳐 런던의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하우스에서 이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춤곡이 풍부하게 삽입되어 안무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오페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연출을 맡은 웨인 맥그리거 역시 영국이 자랑하는 젊은 안무가이다. 〈디도와 에네아스〉는 멸망한 카르타고의 왕자 에네아스가 주피터의 신탁을 받아 이탈리아로 향하던 도중에 풍랑을 만나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 표착했다가 그곳의 여왕 디도와 사랑에 빠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재차 이탈리아로 떠나야 하기에 비탄에 빠진 디도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퍼셀은 이 고전적 비극에 풍부한 대조효과를 불어넣어 4세기 전의 극음악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효과를 얻어냈다. 바로크 음악의 권위자 크리스토퍼 호그우드도 계몽시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메조소프라노 사라 코놀리와 비리톤 루카스 미첨이 비극적인 두 주인공을 노래한다. 루시 크로우(시녀 벨린다), 사라 풀고니(마녀)도 주역에 못지 않은 눈부신 조역이다.

[보충자료]

○ 연출자 웨인 맥그리거(1970~)는 영국의 무용가이자 다방면의 영역을 넘나드는 멀티 아티스트이다. 특히 영화, 음악, 비주얼 아트, 테크놀로지와 사이언스를 춤과 결합시킨 수많은 작업으로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나 그의 본업은 안무다. 로열 발레의 상주안무가이자 자신의 이름을 딴 컴퍼니를 이끌고 있으며, 라 스칼라 발레, 파리 오페라 발레,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 슈투트가르트 발레, 샌프란시스코 발레, 잉글리쉬 내셔널 발레와 많은 작업을 함께 했다.

○ 2009년은 헨리 퍼셀 탄생 350주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심지어 부친이 누구인지 모친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것이 없다. 생애 역시 알려진 것은 거의 없고 한창 나이에 맞이한 요절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소문들이 떠돌 뿐이다. 런던 출생이고 궁정작곡가, 왕실예배당 오르가니스트 등으로 활약하면서 다수의 교회음악과 기악곡을 남겼으며, 오페라로는 〈디도와 에네아스〉, 〈아더왕〉, 〈요정의 여왕〉, 〈인도의 여왕〉등이 있다. 그의 음악은 홀수의 소절로 이루어진 주제, 불규칙한 프레이징, 박자와 리듬의 충돌 등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을 특징으로 하는데, 영국음악은 그의 창작에 의하여 잠시나마 대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Opus Arte DVD OA1019D

나의 첫 발레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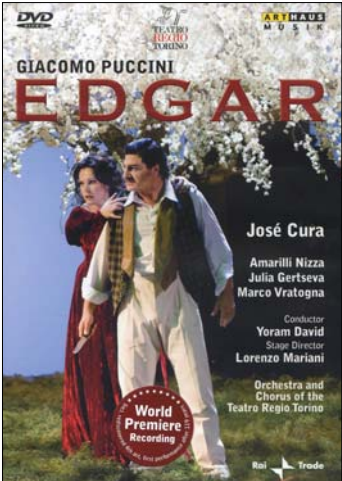
발레가 어렵다고? 천만에, 이 한 장이면 그 매력덩이 옛보기로 충분!

발레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프랑스어가 복잡하게 결합된 수많은 용어 탓이다. 그러나 용어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순서다. 인간 육체의 움직임을 가장 아름답게 포착하는 발레의 매력에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 미학이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가장 극성스럽다는 발레토마니아 군단의 일원이 될 것이다. 본 DVD는 발레 관련 영상물을 가장 활발하게 내놓고 있는 OPUS ARTE의 보물창고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최신의 명장면들을 엄선한 것이다.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 〈백조의 호수〉, 〈잠자는 미녀〉, 〈호두까기 인형〉을 위시하여 낭만발레의 최고봉 〈지젤〉, 서정적인 희극발레 〈고집쟁이 딸〉과 〈코펠리아〉, 전원적인 발레 〈실비아〉와 요정과 마법이 가득한 〈한여름 밤의 꿈〉, 신데렐라를 할리우드 배우지망생으로 바꿔버린 누레예프의 〈신데렐라〉까지 만날 수 있다. 게다가 최고의 몸짱, 얼짱인 세계적인 발레리노와 발레리나들이 수없이 등장한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모던 발레는 하나도 담지 않았다. 이 한 장이면 고전 발레의 가장 중요한 장면들은 대체로 경험하지 않을까?

[보충자료]

○ 발췌된 영상물은 다음과 같다. 차이코프스키 3대 발레 중에서 프티파 안무의 〈잠자는 미녀〉는 2006년 로열 발레 실황으로 알리나 코조카루 주역이다. 프티파와 이바노프가 공동안무한 〈백조의 호수〉는 2009년 로열 발레 실황이며 마리아넬라 누네즈와 티아고 소아레즈가 출연한다. 이바노프 안무의 〈호두까기 인형〉은 2007년 샌프란시스코 발레 실황과 1996년 로열 발레 실황 중에서 뽑았다. 애쉬튼이 안무한 〈고집쟁이 딸〉과 〈실비아〉는 둘 다 2005년 로열 발레 실황인데 〈고집쟁이 딸〉에는 마리아넬라 누네즈와 카를로스 아코스타가, 〈실비아〉는 다시 버셀과 로베르토 볼레가 주역을 맡았다.

○ 멘델스존 음악, 발란신 안무의 〈한여름 밤의 꿈〉은 1999년 미국의 사우스퍼시픽 발레의 런던 공연 실황이다. 아당이 작곡하고 코라이와 페로가 공동안무한 〈지젤〉은 2006년 로열 발레 실황으로 알리나 코조카루와 요한 코보그가 주역을 맡았다. 이상과 같이 로열 발레의 코벤트가든 실황이 가장 많은데, 앞으로 더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코벤트가든 측이 오푸스 아르테 레이블을 인수했기 때문에 한동안 만나기 힘들었던 로열 발레의 실황이 다수 발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Arthaus DVD 101 377

푸치니: 에드가르

놀라운 무대와 호세 쿠라의 열창으로 재탄생한 푸치니의 잊혀진 오페라

푸치니의 오페라는 10개(3부작을 각각으로 보면 12개)에 불과하다. 〈에드가르〉는 31세(1889년)에 작곡한 두 번째 오페라이며 다음 작품 〈마농 레스코〉부터 성공을 거둔다. 〈에드가르〉는 순결한 여인과 팜파탈 사이에서 방황하던 남자가 뒤늦게 진실한 사랑을 찾아 돌아오지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내용인데, 주인공 에드가르는 마치 탄호이저를 연상시키는 캐릭터로서 영웅적 테너에 적합하다. 이 오페라는 초연 당시 4막으로 작곡되었으나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3막으로 개작되었다. 생략된 마지막 막의 몇몇 모티브는 후일 〈토스카〉에 전용되었다. 자주 공연되지 않지만 여짜무대에 오를 경우도 개편판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던 〈에드가르〉는 2008년 푸치니 탄생 150주년을 맞아 토리노 가극장에서 109년 만에 4막의 초판본으로 공연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대표하는 드라마틱 테너인 호세 쿠라가 타이틀 롤을 맡아 특유의 극적인 분위기를 제대로 되살려냈다. 원래 중세의 플랑드르 지방을 배경으로 하지만 연출자 로렌초 마리아니는 근대 유럽의 아름다운 전원으로 설정하여 오랫동안 잊혀 있었던 이 작품에 매력적인 뉘앙스를 불어넣었다.



Arthaus DVD 107 092

프티: 발레 〈클라비고〉

〈파우스트〉를 예고한 괴테 초기작, 롤랑 프티의 발레로 살아나다!

〈클라비고〉는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25세(1774년)에 쓴 초기작이다. 〈파우스트〉의 축소판이라 할 캐릭터 구성인데, 타이틀롤인 클라비고는 파우스트, 마리는 마르그리트, 카를로스 메피스토펠레스, 보마르세는 발란틴, 미지의 여인은 헬레네(2부)를 연상시킨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여기 등장하는 보마르세가 모차르트와 로시니의 오페라로 유명한 '피가로 3부작'의 원작자 바로 그 사람이란 것이다. 클라비고 또한 실존인물이다. 평민이면서 일약 스페인 궁정으로 진출한 비범한 인물인데, 보마르세의 여동생 마리와 사랑에 빠지지만 출세에 대한 욕망 때문에 하룻밤 사랑으로 끝낸다. 보마르세는 절망한 여동생의 죽음에 분노하여 클라비고에게 복수를 꾀한다. 20세기의 가장 감각적 안무가인 롤랑 프티는 마르세이유 국립발레를 25년 만에 물러난 후 1999년 파리 오페라 발레를 위해 이 발레를 만들었다. 중요한 두 장면을 과기적인 몽상가로 유명한 18세기 독일화가 하인리히 뫼슬리의 그림에서 착안했는데, 특히 잠든 마리의 침대로 클라비고가 거미처럼 내려오는 장면은 발레 역사에 남을 만큼 인상적이다.



Arthaus DVD 101 384

어느 장원(莊園) 이야기

베리만의 영화를 닮은 라거뢰프 원작, 이스베리 안무의 스웨덴 발레

광기, 질병, 배신, 인간과 신의 관계를 집요하게 다룬 잉마르 베리만의 영화는 현실과 꿈을 오가는 어두운 분위기가 특징이다. 그가 스웨덴 출신이며 영화 대부분의 배경이 스웨덴이란 것을 아는가? 그런데 그런 특징은 베리만 고유의 것이 아니다. 가장 북유럽적인 스웨덴 문화의 축적물이다. 그 중요한 지점에 여러작가 셀마 라거뢰프(1858~1940)가 있다. 1909년, 스웨덴 최초이자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라거뢰프는 그 얼굴이 스웨덴의 20크로나 지폐에 새겨졌을 정도로 국민적 작가다. 이 영상물은 그녀의 대표작의 하나인 〈어느 장원 이야기〉를 현재 스웨덴을 대표하는 안무가 패트 이스베리가 1989년 TV용으로 안무한 것이다. 바이올린에 대한 집념을 가졌지만 가문이 몰락하자 야수처럼 방황하다가 거의 미쳐버린 한 젊은이, 유랑극단을 쫓아다니던 시절에 그를 잠깐 만난 인연을 이어가는 한 순결하면서도 불운한 소녀의 이야기가 마치 베리만의 영화 한 편을 보듯, 혹은 〈미녀와 야수〉의 심각한 버전을 보듯 어두운 판타지로 펼쳐진다. 대중적인 작품은 아니지만 다른 발레에서 좀처럼 만날 수 없는 독특한 감동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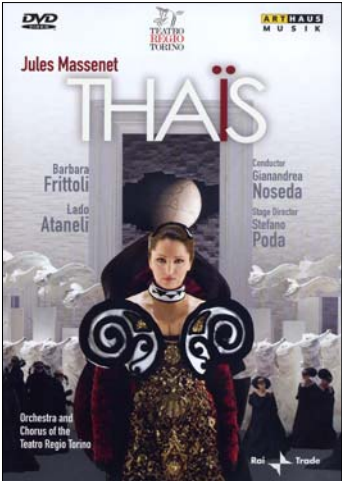
Arthaus DVD 101 359
[2 DVDs]

바그너: 신들의 황혼

노베르트 슈미트베르크(지크프리트), 캐서린 포스터(브륄힐데), 레나투스 메사르(하겐), 마리오 호프(군터), 마리에타 춤빌트(군트루네) 외/ 칼 세인트 클레어/ 바이마르 슈타츠포켈레

바이마르 링 사이클의 대미를 장식하는 역작

바흐, 괴테와 실러, 그리고 리스트와 바그너를 품었던 중부 독일의 문화도시 바이마르. 2008년 바이마르 슈타츠포테아터에서 완결되었던 마카엘 솔츠 연출의 바그너 '링' 사이클은 이 도시의 든든한 문화적 저력을 다시금 드러내었던 화제의 공연이었다. 4부작의 대미를 장식하는 '신들의 황혼'은 그 자체만으로도 5시간에 가까운 연주시간을 필요로 하는 대작으로, 서막의 지크프리트와 브륄힐데의 이중창, 서막과 1막 사이의 간주곡인 '지크프리트의 라인여행', 2막의 하겐과 병사들의 합창, 3막의 지크프리트의 죽음과 장송행진곡, 그리고 오페라 역사상 가장 장대한 모놀로그로 손꼽히는 브륄힐데의 회생 장면과 같은 명장면들이 곳곳에 삽입되어 있다. 솔츠는 미니멀한 무대 배경 위로 가수들의 적극적인 연기를 통해 이 대작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해내었다.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의인화된 애마 그라네가 앞서 작품들에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극의 전개에 참여하는 점이 인상적이며, 브륄힐데를 노래한 캐서린 포스터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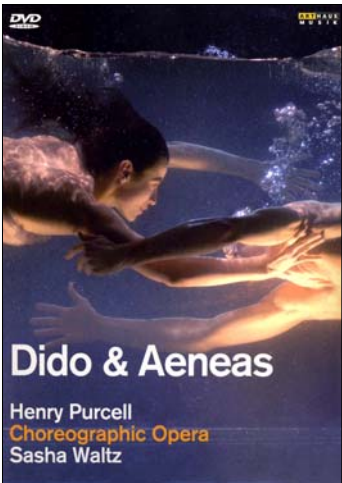
Arthaus DVD 101 385

마스네: 타이스

바르바라 프리톨리(타이스), 라도 아타넬리(아타나엘), 알레산드로 리베라토레(니시아스) 외/
자난드레아 노세다/ 테아트로 레지오 토리노

초현실주의적 배경 위로 강렬하게 펼쳐지는 성과 속의 이중주

아름다운 선율의 바이올린 소품인 '타이스의 명상곡'으로 유명한 마스네의 '타이스'는 프랑스의 대문호 아나톨 프랑스의 동명 소설을 내용으로 완성한 3막 오페라다. 성(聖)과 속(俗)을 대변하는 두 주인공인 수도사 아타나엘과 이집트의 고급 창녀 타이스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서 각각 상대방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과정을 마스네 특유의 세련된 선율을 통해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다. 2막의 1장과 2장 사이에 등장하는 하프 반주의 바이올린 간주곡은 '타이스의 명상곡'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오페라 전곡이 연주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노래하기 힘든 역할로 악명 높은 타이스 역할을 능숙하게 해결해낼 가수가 드물기 때문이다. 본 DVD는 2008년 토리노의 레지오 극장에서의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리릭과 드라마틱 양 분야 모두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소프라노 바르바라 프리틀 리가 노래와 연기 양쪽 모두에서 이 역할에 적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주의 미술작품을 보는 듯한 스테파노 포다의 강렬한 무대미술과 전곡을 양분하는 성과 속의 상반된 분위기를 음악을 통해 멋지게 연출해낸 자난드레아 노세다의 지휘도 훌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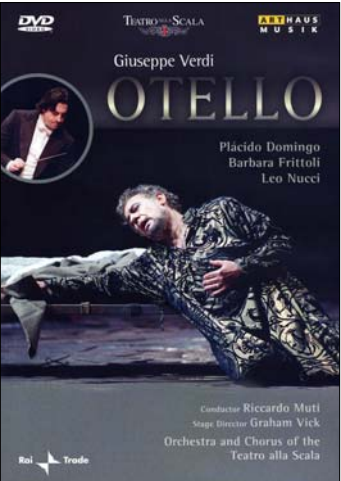


Arthaus DVD 101 311

퍼셀: 디도와 에네아스/ 사샤 발츠_안무

사샤 발츠의 춤으로 재창조된 '세계 최초의 수중 오페라'

퍼셀의 <디도와 에네아스>는 영국 오페라 역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이요, 바로크 오페라의 대표작 중 하나다. 미국의 마크 모리스가 이를 이용한 무용극을 만들었을 정도로 무용가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오페라이기도 하다. 그런데 2005년, 외신은 세계 최초의 수중 오페라 소식을 전했다. 사샤 발츠가 안무한 <디도와 에네아스>가 물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물이 찬 거대한 수조 앞에 17명의 무용단원이 모였고, 출연자들이야 힘들었겠지만 물의 부력으로 인해 무척 독특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물론 무용수들이 해엄치는 부분은 개시부에만 포함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성악가와 그 역할을 춤으로 표현하는 무용수들이 함께 '오페라'를 공연한다. 사샤 발츠가 '안무에 의한 오페라'라고 부른 것에 주목하라. 본질적인 무용극이 아니라 오페라에 무용적인 요소를 가미했을 뿐이란 관점이니 말이다.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와 베를린 보칼 콘스트라는 일류단체가 연주에 참여했다. 모든 장면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참신함으로 가득하지만 특히 디도가 풀어헤친 자신의 긴 머리칼에 갇혀버리듯 죽어가는 마지막 안무는 전혀 새로운 것을 체험하는 듯 충격적이다.



Arthaus DVD 107 090

베르디: 오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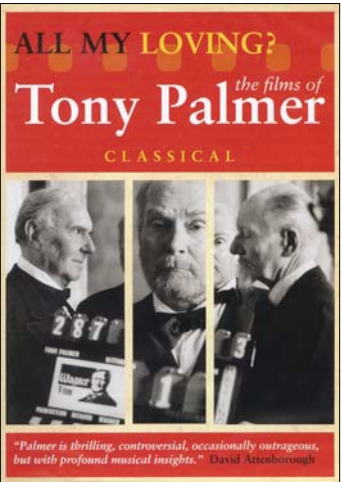
우리 시대 최고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마지막 <오텔로>

플라시도 도밍고는 25년 이상 최고의 오텔로로 무대를 누벼왔고 목소리의 질감도 여전하지만 환갑을 맞이한 2001년부터는 더 이상 이 어려운 역을 부르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2월의 라스칼라 공연을 마지막 <오텔로> 무대로 삼기로 한다. 이날 공연은 베르디 서거 100주년을 마무리하는 공연이자 라스칼라 극장이 3년간의 대대적 보수를 위한 휴관에 들어가는 고별 공연도 겸했다. 거장 그레이엄 빅의 연출은 센세이션날하지 않지만 극적으로 민감하며 통일감 있는 무대와 함께 이런 느낌을 강화한다. 도밍고는 물론이거니와 바르바라 프리톨리는 근래 가장 훌륭한 데스 메모나를 들려준다. 레오 누치는 인간에 대한 저주로 이유 없이 악을 행하는 천재적인 악역 이아고를 냉정한 연기력과 성격적인 가창으로 완벽하게 살렸다. 게다가 거장 리카르도 무티가 리드하는 오케스트라의 울림은 이 오페라의 어두운 면을 남김없이 포착하면서도 매우 풍요로운 사운드를 과시하고 있어 가장 설득력 있는 <오텔로>라고 할 수 있다.

(구, TDK DVUS-OPOTEL 통일 영상물)

Tony Palmer's Film DVD

www.tonypalmerdv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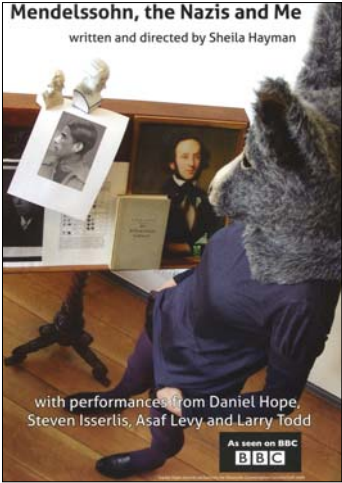


Tony Palmer's DVD
TPDVD154

토니 팔머의 다큐멘터리 필름들

음악 다큐의 황제, 토니 팔머의 정력적 산물을 한꺼번에 맛보다!

토니 팔머는 음악 다큐멘터리의 황제다.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BBC에서 일하면서 거장 켄 러셀과 조나단 밀러 밑에서 훈련을 쌓은 그는 일단 다작으로 유명한데 지금까지 100여 편에 달하는 음악, 연극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놀라운 것은 그 범위가 비틀즈의 팝음악부터 헨리 퍼셀, 쇼스타코비치, 마리아 칼라스는 물론 배우 리처드 버튼이나 발레리나 마고트 폰테인에 이르며 하나같이 높은 수준의 걸작이어서 지금껏 뉴욕 필름 페스티벌에서 12개의 금메달을 타는가 하면 영국 아카데미상과 에미상도 수차 수상했다. 전례가 없는 대기록이다. 이 영상물에는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토니 팔머의 대표적 다큐멘터리 25편의 주요장면이 155분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인물로는 베를리오즈, 피터 셀라스, 마고트 폰테인, 라흐마니노프, 칼라스, 메뉴인, 윌리엄 월튼, 본-윌리엄스, 존 오스본, 바그너, 벤자민 브리튼, 쇼스타코비치, 리처드 버튼, 스트라빈스키, 퍼셀, 칼 오르프, 헨델, 푸치니, 브람스, 앙드레 프레빈, 힌데미트, 비비 무어가 실렸고 그밖에 잘츠부르크 페스티벌과 파르지팔에 대한 다큐의 한 장면도 만날 수 있다. 결국은 그의 모든 다큐멘터리 필름을 갖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우아한 발레리나 아녜스 레테스튀가 타이틀 롤을 맡았다. 쇼팽의 음악이 마르그리트의 슬픈 사랑, 비참한 죽음과 기막힌 상승작용을 이끌어낸다.



CPVP020DVD

멘델스존, 나치와 나

나치 시대에 유대인 멘델스존의 음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934년까지 독일의 결혼식에서는 펠릭스 멘델스존의 결혼행진곡을 언제나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상황이 돌변했다. 꼭 결혼행진곡이 아니더라도 멘델스존의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본 영상물은 2009년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을 맞아 BBC에서 방송된 여류작가이자 감독 셰일라 헤이먼의 다큐멘터리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멘델스존의 누이이자 일급의 여류작곡가였던 파니 멘델스존의 후손이란 점이다. 그녀는 나치를 피해 영국으로 피신한 자신의 부친, 그리고 부친의 두 여사촌을 인터뷰하며 나치가 자행한 멘델스존 말살정책을 고발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멘델스존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 바흐 재평가에 앞장섰을 정도로 독일 음악계에 공헌했고, 조부와 부친도 독일 학계와 금융계의 중요인물이었으며, 독일사회에 동화하고자 기독교로 개종한 가문이었음에도 아리안 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한 나치는 멘델스존의 기록을 지워버리고자 했다. 유대인의 피가 얼마나 섞였는가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심지어 유대인의 표준두상을 분석하여 인종 판별에 활용했다는 설명에 이르면 나치의 집요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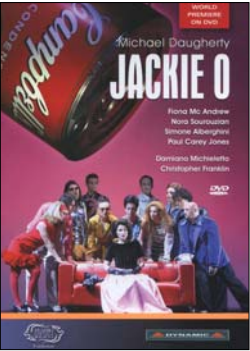
[보충자료]

○ 펠릭스 멘델스존(1809~1847)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증조부 대까지는 멘델이라 하다가 조부 모제스 때부터 멘델스존이라 부르게 되었다. 조부는 사업가인 동시에 철학적인 저작을 남겼다. 부친 아브라함은 베를린에서 은행을 설립하여 부를 축적했다. 모친은 유대계 은행가의 딸인데, 이처럼 멘델스존 일가는 기독교를 신봉하는 부유한 유대계 독일인이었다. 그는 모차르트, 로시니, 슈베르트, 프로코피예프와 더불어 최고의 신동으로 11세 무렵부터 자기 작품을 보존하기 시작했다. 〈한여름밤의 꿈〉서곡을 작곡한 것은 17세였다. 20세에는 바흐 사후 거의 잊혀졌던 〈마태 수난곡〉의 재연을 행했는데, 이것은 음악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공헌이었다. 교향곡 제3번 ‘스코틀랜드’ 제4번 ‘이탈리아’는 고전적인 형식감각을 이어받았지만 묘사적인 내용으로 보나, 지방색이 풍부한 리듬이라든가 멜로디로 보나, 또 광채 넘치는 악기법으로 보나 명백히 19세기적이며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 속에서 멘델스존이 차지한 위치를 보여준다. 1833년부터는 지휘자로 많이 활동하는데, 특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를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악단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든가, 그 연주곡에 바로크 대가들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함과 동시에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연주함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근대적 지휘자의 시초는 멘델스존이란 평가가 있을 정도다. 그러나 워낙 악한 체질인데도 과로를 한데다가 누나 파니 멘델스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아 3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Dynamic DVD

www.dynamic.it



Dynamic DVD 33605

마이클 도허티: 재키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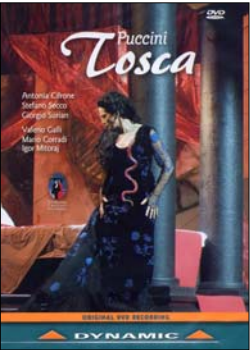
재클린 케네디와 오나시스, 그리고 칼라스가 주인공인 화제의 오페라

오페라 팬이라면 마리아 칼라스와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의 사랑이 재클린 케네디로 말미암아 파국을 맞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케네디는 오나시스와 결혼하면서 ‘재키 O’라는 별명을 얻었다. 다방면에 걸쳐 활약하는 미국 작곡가 마이클 도허티(1954~)의 〈재키 O〉는 재키, 칼라스, 오나시스의 실화에 픽션을 더해 만든 작품으로 1997년 초연된 이래 최근엔 유럽에서도 환영받는 20세기 오페라의 히트작이며 1960년대 미국 팝문화를 질چه 드리우는가 하면 〈라 트라비아타〉같은 유명 오페라의 명장면도 패러디한다. 세 주인공 외에 앤디 워홀,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레이스 켈리 등 유명인사가 등장한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 현실인지 꿈결인지 모호하지만 재키와 칼라스가 화해한다든가, 죽은 케네디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바람기를 용서한다든가 하는 설정도 의미심장하다. 정신을 차린 재키가 미국으로 돌아가 봉사할 것을 결심하는 장면은 과연 미국 오페라다운 결말이다. 본 영상물은 이탈리아 초연 프로덕션인 2008년 볼로냐 시립 가극장 실황이다. 간결하지만 효과적인 무대, 실제 인물을 연상시키는 뛰어난 분장과 의상이 대단히 효과적이다.

푸치니: 토스카

푸치니가 사랑한 토레 델 라고 호반에서 펼쳐진 시원스런 〈토스카〉

푸치니는 유명해지기 이전인 1891년(33세)부터 고향 루카에서 멀지 않은 토레 델 라고의 호숫가에 세를 내어 거처를 마련한다. 〈마농 레스코〉〈라 보엠〉의 성공으로 돈을 벌자 호수 옆에 직접 빌라를 짓고 땅도 사들였다. 만년의 〈삼부작〉과 〈투란도트〉를 제외하면 그의 모든 명작 오페라가 이곳에서 탄생했지만 도리아 만프레디라는 하녀가 푸치니와 통정했다는 누명을 쓰고 자살한 사건도 벌어졌으니 토레 델 라고는 푸치니가 온갖 영욕을 함께한 곳이었다. 푸치니가 세상을 떠난 6년 후인 1930년부터 이곳에서는 그의 오페라를 호반에서 상연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60주년을 맞은 1990년에는 페스티벌을 주관하는 재단이 설립되면서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부상했다. 본 영상물은 2007년 8월에 공연된 푸치니 페스티벌 실황이다. 이탈리아에서 푸치니를 가장 잘 부르는 소프라노의 한사람인 안토니아 치프르네, 과거 이탈리아 명테너의 전통을 제대로 물려받은 스테파노 세코, 성격적인 연기에 능한 바리톤 조르지오 수리안이라는 빼어난 주역진이 1800년 6월의 어느 날 로마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실감나게 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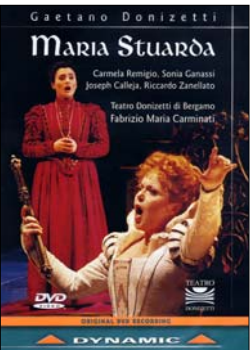


Dynamic DVD 33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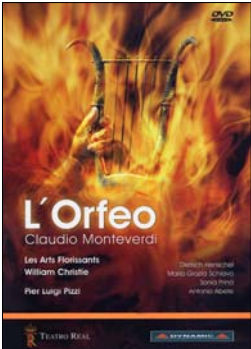
도니체티: 마리아 스투아르다

비운의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의 슬픈 사랑과 죽음

대영제국을 뜻하는 United Kingdom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지역의 연합체이다. 물론 그 중심은 잉글랜드지만 예로부터 북쪽의 스코틀랜드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영국과 맞선 경우가 많았다. 미녀로 유명했던 16세기 중반의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는 남편을 암살한 자를 새 남편으로 맞는 등 잘못된 처신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후 먼 친척딸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보호를 청했다. 엘리자베스는 그 청을 들어주었지만 이 잠재적인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자를 꼭 감시하다가 반역죄로 처형해 버린다. 〈마리아 스투아르다〉는 바로 비운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의 이탈리아식 표기다. 이른바 ‘여왕 삼부작’의 두 번째 작품이며 두 여왕의 사랑을 받는 레이체스터 경을 추가하여 삼각관계가 줄거리의 축을 이룬다. 본 영상물은 2001년 12월 도니체티의 고향 베르가모에서 있었던 실황이다. 미모의 소프라노 카르멜라 레미지오와 현역 최고의 벨칸토 메조소프라노 소냐 가나시의 대결이 불만하다. 그러나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리릭 테너로 부상한 몰타 출신의 요셉 칼레아는 더욱 큰 관심사이다. 약관 23세의 어린 나이로 레이체스터 역을 맡아 시원한 미성과 뛰어난 음악성을 과시한다.



Dynamic DVD 33407



Dynamic DVD 33598



Dynamic DVD 33609
[2DVDs]



Dynamic DVD 33614
[2DVDs]

몬테베르디: 오르페오

오페라 역사상 최초의 걸작, 그 격을 최고의 거장연출가가 되살린다

2007년은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오르페오〉의 초연 400주년으로 유럽 오페라계가 들끓었다. 그 도 그럴 것이 오페라가 처음 세상에 나타난 것은 1600년 이전이지만 예술성을 지닌 최초의 걸작은 1608년의 〈오르페오〉라는 것이 통설이기 때문이다. 〈오르페오〉 봄은 이듬해로 이어져 스페인의 왕립가극장인 테아트 로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공연되었다. 본 영상물은 그 실황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오 이야기, 즉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되살리고자 기꺼이 황천으로 향하는 남편의 모험은 당시 가장 매력적인 소재였다. 생사를 뛰어 넘는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내용이 고전 비극의 부활을 목표로 탄생한 오페라의 이상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오페라를 현대에 되살릴 경우에도 얼마나 보편적인 격조를 새로운 감각으로 구현하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 2007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헨델의 〈리날도〉를 통해 바로크 오페라에 대한 천재적 식견을 과시한 거장 피에르 루이지 피치가 연출과 무대, 의상을 도맡아 옛 오페라의 아름다움을 신비스럽게 펼쳐낸다. 지휘자 윌리엄 크리스티와 그가 이끄는 레자르 플로리상도 바로크 오페라 최고의 실력파로서 당대의 의상 차림으로 연주한다.

로시니: 에르미오네

대(大)아바도의 조카가 지휘하고 아들이 연출한 로시니의 비극 오페라

〈에르미오네〉는 1819년 나폴리 초연 후 150년 이상 버려졌다가 1977년에야 부활했다. 1980년대부터 로시니 붐을 타고 공연이 늘었지만 여전히 미지의 작품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로시니 연구의 권위자 필립 고세트는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에르미오네〉는 비극 오페라다. 희극의 명수로 알려진 로시니는 사실 진지한 오페라도 많이 썼지만 〈에르미오네〉만큼 장중한 작품은 거의 없다. 트로이 전쟁 후 아킬레우스의 아들 피루스는 포로로 잡아온 트로이의 영웅 엑토르의 미망인 안드로마케에게 구애한다. 피루스로부터 버림 받은 에르미오네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녀를 사모하는 오레스테를 시켜 피루스에게 복수한다. 본 영상물은 2008년 페사로의 로시니 페스티벌 실황이며 위대한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장조카 로베르토 아바도가 지휘를, 클라우디오의 친아들 다니엘레 아바도가 연출을 맡고 있다. 로베르토는 이미 유명 지휘자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로 재해석한 다니엘레의 연출에도 주목하시라! 타이틀 롤을 맡은 소냐 가나시의 1막 피날레 열창은 머리털이 곤두선다는 호평을 받았다.

비제: 카르멘

매력적인 가수들이 모인 〈카르멘〉의 가장 성공적인 야외 프로덕션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은 야외오페라의 본산인 베로나 여름 페스티벌에서 가장 인기 높은 레퍼토리의 하나이다. 베로나를 맹렬히 뒤흔들고 있는 이탈리아 동부 마체라타의 스페리스테리오 페스티벌도 이에 질 수 없다는 듯 야심에 찬 〈카르멘〉을 선보였다. 단테 페레티가 연출과 무대디자인을 맡았고 동 페스티벌의 총감독인 거장 피에르 루이지 피치가 의상을 디자인하는 동시에 자신과 많은 작업을 함께 한 안무가 게오르게 이안쿠를 참여시켰다. 2008년 여름 실황인 본 영상물은 뛰어난 가수진으로도 흥미롭다. 최근 세계 성악계의 강자로 떠오른 그루지아를 대표하는 메조소프라노 니노 수르굴라제는 매력적인 외모와 깔끔한 가창력으로 새로운 카르멘 상을 창조했고, 베트남 혈통의 프랑스 테너 필리프 도는 돈 호세의 순진한 캐릭터를 서정적인 소리로 살려냈다. 게다가 2007년 늦가을, 세종문화회관에서 〈라 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를 불러 절찬을 받은 러시아의 새로운 미녀 소프라노 이리나 룡구를 미카엘라 역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즐거움이다. 전체적으로 스페인의 풍광이 강조된 연출은 아니지만 야외 오페라로서의 미덕이 충분히 살아나는 매력적인 영상물이다.



Capriccio DVD

www.arthaus-musik.com



Capriccio 93507

하이든: 천지창조

남자 소프라노 막스 에마누엘 첸치치가 노래한 유일무이한 〈천지창조〉

〈천지창조〉는 2009년 서거 200주년을 맞이한 프란츠 요셉 하이든의 위대한 걸작이며 헨델의 〈메시아〉와 쌍벽을 이루는 역사상 최고의 오라토리오다. 창세기에 기록된 옛세간의 창조과정을 총 3부, 34곡으로 그려내는 데 1부와 2부에서는 합창과 함께 천사 가브리엘(소프라노)과 우리엘(테너), 라파엘(베이스)이 노래하고 3부에서는 천사 중엔 우리엘만 남고 아담(베이스)과 이브(소프라노)가 추가된다. 따라서 독창자는 3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다. 1994년 5월, 빈 실황인 본 영상물은 5명의 독창자를 기용했는데 그중 가브리엘을 부른 크로아티아의 막스 에마누엘 첸치치의 존재감이 특별하다. 빈 소년 합창단 출신인 첸치치는 변성기가 되자 카운터테너로 변신했는데 놀랍게도 알토 음역 대신 소프라노 음역을 불렀기 때문이다. 요즘엔 머리를 뺨뺨 밀어버린 독특한 외모지만 당시의 첸치치는 얼굴에 여드름 자국이 남은 겨우 18살의 풋풋한 모습으로 여성 뺨치는 놀라운 고음과 완벽한 테크닉을 구사한다. 그 유명한 무지크페라인잘에서 공연된 실황답게 합창단의 기량이나 여타 독창진용의 노래도 무척 뛰어나다.

칼만: 시카고에서 온 공작부인

헝가리 작곡가 에머리히 칼만의 브로드웨이풍 오페레타

유태계 헝가리 작곡가 에머리히 칼만(1882~1953)은 부다페스트 음악원에서 공부한 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주로 활약했다. 오페레타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같은 헝가리 출신의 선배 프란츠 레하르(1870~1948)의 라이벌이기도 했다. 레하르와 함께 빈 오페레타의 제2기를 대표하는 그의 대표작은 〈마리차 백작부인〉(1924)과 〈서커스의 여왕〉(1926)이다. 그러나 1928년에 초연된 〈시카고에서 온 공작부인〉은 빈에서 상연된 것이면서도 미국에 불기 시작한 뮤지컬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작품이다. 레하르의 대표작 〈유쾌한 미망인〉에 대한 오마주로 보이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만 사들이는 부유한 여인들과 가상국가 실바리아의 왕자 보리스의 이상한 사랑 놀음이 줄거리의 뼈대를 이룬다. 재즈를 비롯하여 20세기의 새로운 댄스 뮤직 스타일이 빈 오페레타의 고전적인 춤곡들과 어우러져 있으며, 마지막 장면에서는 미국에서 온 프로듀서가 두 주인공을 영화에 출연시키자고 제안하는 등 할리우드 스타일의 유쾌한 엔딩으로 막을 내린다. 영상물은 빈 폴크스오퍼의 최신 실황이다.



Capriccio 93509

푸치니: 라 보엠

2002년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호상무대에서 펼쳐진 비아손의 열창

오스트리아와 독일, 스위스 접경지대에 보덴 호수가 있는데, 이중 오스트리아의 브레겐츠에서 매년 여름마다 야외 오페라 페스티벌이 열린다. 특히 이 페스티벌은 호상(湖上)에 세워진 무대에서 펼쳐지는 축제로 유명하다. 본 영상물은 2002년의 동 페스티벌에서 공연된 실황이다. 테이블 위의 소인국에서 벌어지는 아기자기한 이야기로 해석한 무대와 연출도 특이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최고의 테너 롤란도 비아손이 지금까지 유망해지기 직전에 주인공 로돌포를 열창했다는 것이 큰 관심사일 것이다. '그대의 찬 손'을 받음 낮춰 부른 것이 옥의 티지만 역시 완벽한 테너임을 확인하게 된다. 게다가 미미 역의 그리스 소프라노 알렉사 불가리두, 마르첼로 역의 프랑스 바리톤 퀴도빅 테지예르, 무제타 역의 스페인 소프라노 엘레나 데 라 메르세드가 모두 빼어난 외모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은 세계적인 가수들로 성장한 만큼 오페라 팬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영상물이 되었다. 2막의 '무제타의 왈츠' 장면은 본 공연의 백미다. 무제타에게 마릴린 먼로의 매혹적인 이미지를 채색하여 관객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을 뿐 아니라 그녀의 늙은 애인을 쫓아내는 방식도 기발하다.



Capriccio 93515



Capriccio 93517

드뷔시: 어서 가의 몰락

에드거 앨런 포의 기괴한 소설을 드뷔시의 음악으로 만나다!

빠대 있는 집안의 후예인 친구 로데릭 어서의 긴급한 편지로 초대된 '나'는 잔뜩 흐린 가을 해질녘, 호반의 낡은 저택을 찾아간다. 오랜만에 만난 로데릭은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그의 쌍둥이 누이동생 마델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장례를 치르게 된다. 어느 폭풍우 몰아치던 밤, 가사 상태로 장례가 치러진 마델린이 나타나 책을 읽고 있던 로데릭을 향해 쓰러지자 그도 죽고 만다. 이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나는 겁에 질려 뛰쳐나와 저택을 뒤돌아보는데, 그 낡은 집은 두 동강이 나 시커먼 늪 속으로 침몰해가는 것이었다.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괴기소설의 걸작, 에드거 앨런 포의 〈어서가의 몰락〉을 드뷔시가 오페라로 작곡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미완성으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2006년 오스트리아 브레겐츠의 페스티벌 하우스의 무대에 이 작품이 올려졌다. 특이한 점은 오페라를 공연하기 전에 〈목신의 오후〉와 〈유희〉의 음악을 사용한 약 29분 길이의 발레를 먼저 보여준다는 것이다. 덕분에 두 가지 형태의 장르로 감상할 수 있다. 오페라는 주요 남자 역을 모두 바리톤이 부른다는 점이 독특하다.

[보충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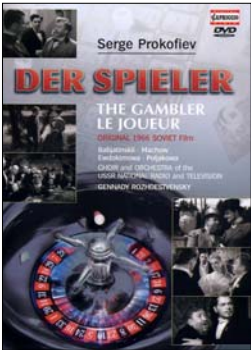
○ 〈어서가의 몰락〉은 1839년 발표되었고 이듬해에 〈괴기담〉에 수록되었다. 신경쇠약증이 발작할 것을 우려한 작가의 심리상태가 반영되었다고 한다. 에드거 앨런 포에게 매료되어 있던 클로드 드뷔시는 젊었을 때부터 이 소설을 교향곡으로 작곡한다는 뜻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08년에야 오페라 작곡을 시작했고 10년간이나 주물럭댔음에도 결국 완성하지 못한 채 건강악화로 포기하고 말았다. 1970년대부터 이 작품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고 2006년 브레겐츠 페스티벌에서 공연된 것은 그 결정적인 성과라는 호평을 받았다.

○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명성을 결정적으로 높인 것은 호반 오페라, 일명 '물위의 오페라'지만 페스티벌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공연도 많이 펼쳐진다. 1980년에 신축된 페스티벌 하우스에서는 좀 더 학구적인 오페라를 상연하고 오페레타를 공연하는 극장도 따로 있다. 심지어 연극이나 무용, 미술 전시회 등도 오페라 페스티벌 기간 중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본 영상물은 신축된 페스티벌 하우스에서 공연된 것이다.

프로코피예프: 도박사

도스토예프스키 원작, 프로코피예프의 첫 오페라, 그 유일한 영상물

도박은 19세기 러시아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지나친 계급사회로 신분 탈출의 열쇠가 거의 없던 시절, 러시아 남자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도박에 몰두했다. 게다가 도박을 잘하면 머리 좋고 남자다운 배포도 있다고 호평하는 분위기였으니 그 폐해 또한 말할 수 없었다. 도스코예프스키도 도박을 정면으로 다룬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1866년의 〈도박사 Igrok〉다. 도박에 대한 스스로의 열정과 한 여인과의 애증관계에서 영감을 얻은 힘있는 장면들이 들어 있다. 주인공에게 절실한 것은 도박에서 이기는 것인데 그것은 언제나 짧다. 그래서 그것을 오래 지속하고자 집착하고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취급을 한다. 그러나 그가 진짜로 견딜 수 없는 것이 권태로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20세기의 천재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는 이 소설을 자신의 첫 오페라로 완성했다. 차이코프스키의 〈스페이드의 여왕〉과 더불어 도박 오페라의 대표작이면서도 영상물로는 1966년 소비에트 시절에 만들어진 흑백의 영화판이 유일하다. 거장 겐나디 로제스트벤스키가 지휘한 음원을 사용했고 영화에 등장하는 출연자들은 성악가가 아니라 모두 배우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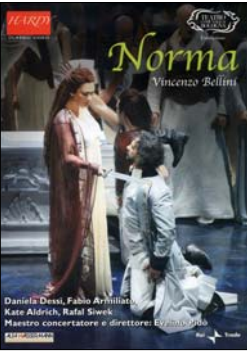
Capriccio 93510



히스토리컬 오페라 영상물의 보고

Hardy Classic DVD

www.arthaus-musik.com



HCD 4034

벨리니: 노르마

우리 시대의 칼라스, 다니엘라 데시가 열창한 놓칠 수 없는 오페라

오페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창조한 인물로 불리는 빈센초 벨리니 최고의 걸작 〈노르마〉는 1831년 초연 이래 인기 레퍼토리의 지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그러나 1950년대 마리아 칼라스의 등장에 의해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았다. 칼라스는 고대 여사제의 카리스마와 한 여인으로서의 연약함을 동시에 지닌 주인공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이후 조운 서덜랜드와 몽세라 카바예가 훌륭한 노르마였고 각각 영상물도 남겼지만 화질과 음질이 열악하여 늘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최신의 영상물도 계속 출시되었지만 노르마의 본질을 제대로 소화한 경우를 만날 수 없었다. 이제 그 긴 숙제가 마침표를 찍는다. 우아한 자태와 카리스마 넘치는 음성을 겸비한 소프라노 다니엘라 데시의 〈노르마〉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2008년의 볼로냐에서 공연된 최신 실황으로 영상물로서의 수준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데시의 놀라운 가창력가 도도한 연기는 단번에 칼라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게다가 적수이자 연인이기도 한 로마 총독 폴리오네를 부른 데시의 실제 남편 파비오 아르밀리아토도 일생일대의 호연을 펼쳤다. 페데리코 티치의 연출은 이 작품의 신화적인 성격을 적절히 살렸으며 거장 에벨리노 피두가 지휘한다.

케루비니: 메데아

마리아 칼라스가 사랑한 혁신적 오페라, 〈메데아〉의 사상 첫 영상물!

이탈리아 출신으로 주로 프랑스에서 활약한 루이지 케루비니(1760~1842)가 1797년 파리에서 초연한 〈메데아〉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작품이다. 그 비극적인 힘, 초기형태이긴 하지만 라이트모티프의 등장, 오케스트레이션의 근대성 등은 동시대의 베토벤은 물론 후기 낭만주의의 장을 연 바그너까지 열광시켰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지만 낭만주의 오페라의 출발점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메데아 역이 워낙 어렵고 음악도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잘 공연되지 않다가 마리아 칼라스가 뛰어난 녹음을 남기면서 재조명받는다. 칼라스가 얼마나 이 오페라를 사랑했는지는 가수 활동을 접은 다음에 이탈리아의 명감독 파올리니가 만든 동명의 영화에 주역배우로 출연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칼라스가 없는 지금, 소프라노와 메조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탈리아의 대항가수 안나 카테리나 안토나치가 메데아를 부른 토리노 왕립극장의 2008년 실황이 이 오페라의 첫 영상물로 소개된다. 대형 오페라를 다루는데 유별난 솜씨가 있는 후고 데 아나가 연출을 맡았고 거장 에벨리노 피두가 지휘대에 섰다. 메데아의 연인 지아소네 역으로는 이탈리아의 떠오르는 테너 주세페 필라노티가 나섰다. 원래 불어지만 요즘 더 자주 사용되는 이탈리아어 판을 사용했다.



HCD 4038

베르디: 오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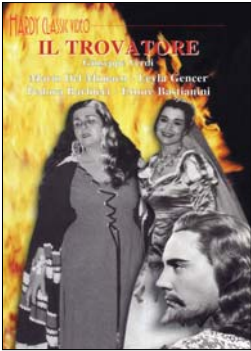
역사상 최고의 오텔로, 마리오 델 모나코의 압도적인 명연

베르디 만년의 오페라 〈오텔로〉는 셰익스피어의 원작보다도 더 극적이라는 격찬을 받는다. 테너의 비중이 어떤 오페라보다도 높은 작품이며 오텔로 역의 위대한 드라마틱 테너는 한 세대에 단 한 명만 존재한다는 속설도 있다. 마리오 델 모나코(1915~1982)는 그 오텔로의 명가수 계보에서도 가장 우뚝 솟은 고봉이며 가장 열광적인 매니아 층을 보유하고 있는 전설적인 테너다. 굵직한 음성의 드라마티코였으면서도 워낙 찬란한 음성이어서 '황금의 트럼펫'이란 별명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극의 본질에 단번에 육박해 들어가는 본능적인 힘은 비교할 상대가 없었다. 본 영상물은 1958년 이탈리아 국영방송에서 만든 흑백 필름이다. 당시 유망한 소프라노였던 로잔나 카르테리가 데스데모나를, 다재다능한 바리톤 레나토 카페키가 악마적인 이아고를 노래하고 이탈리아 오페라의 대표 지휘자인 톨리오 세라핀이 지휘봉을 잡았다.

* 화면: 흑백



HCD 4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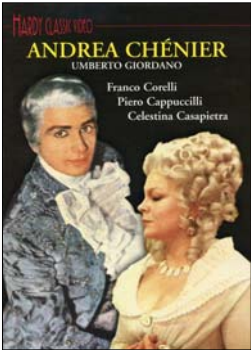
HCD 4006

베르디: 일 트로바토레

4인의 전설적 명가수가 펼쳐내는 박력있는 선율의 대향연

〈일 트로바토레〉는 각 성부별로 네 명의 최고의 가수가 모여야만 제대로 완성을 보는 오페라다. 베르디는 벨 칸토 오페라의 선율적인 특징과 중세 스페인의 암울한 복수극이라는 배경을 결합하여 오페라 역사상 가장 박력 넘치는 선율의 향연으로 만들어냈다. 따라서 네 주역은 벨칸토 창법에 정통한 동시에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를 지녀야 한다. 1957년 이탈리아 국영방송이 제작한 이 흑백필름은 그런 조건을 충족시킨다.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만리코)는 ‘황금의 트럼펫’이라 불린 드라마티코 음성을 맘껏 뽐내며, 마리아 칼라스에 비견되는 벨칸토 소프라노였던 터키 출신의 레일라 젠헤르(레오노라)는 대형 소프라노의 면모를 드러낸다. 전설적인 바리톤 에토레 바스티아니니(루나 백작)는 귀족의 고고한 품격과 질투심에 불타는 악역의 캐릭터를 동시에 구현했다. 페도라 바르비에리(아추체나)는 줄리에타 시묘나토의 유일한 라이벌이었던 당대 최고의 메조소프라노다. 〈일 트로바토레〉의 에너지를 만끽할 수 있는 역사적인 영상물이다.

* 화면: 흑백



HCD 4008

조르다노: 안드레아 세니에

안드레아 세니에의 화신, 프랑코 코렐리의 마지막 오페라 영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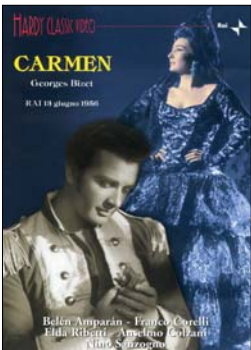
조르다노의 〈안드레아 세니에〉는 이탈리아 오페라지만 프랑스 대혁명 당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실존 시인의 삶과 사랑을 다룬 것이다. 혁명에 동조했지만 혁명의 결과가 또 다른 형태의 독재로 나타나는 것을 반대했던 풍운아의 삶을 조르다노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격정적으로 그려냈다. 세니에 역은 지금까지 마리오 델 모나코, 프랑코 코렐리,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쿠라 등 각 세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드라마틱 테너만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코렐리는 1960년대에 이 역으로 명성을 떨쳤다. 본 영상물은 1973년에 촬영된 것으로 이탈리아 국영방송에서 나온 일련의 시리즈 중에서 가장 화질이 양호하다. 52세의 코렐리는 아직도 젊은 혁명가처럼 멋진 외모와 쭉 뻗은 다리를 자랑하며 목소리에 실린 힘도 여전하다. 세니에가 사랑하는 마달레나 역에는 제노바 출신의 소프라노 첼레스티나 카사피에트라, 하인 출신의 혁명가이자 세니에의 연적 제라르 역에는 연기파 바리톤 피에로 카푸칠리가 열연한다.

비제: 카르멘

프랑코 코렐리, 이탈리아어로 〈카르멘〉을 부른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오페라의 본고장 유럽에서조차 외국 오페라를 자국어로 번역하여 부르는 것이 비밀비재했다. 언어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극장의 자막시스템이 일반화되면서부터 원어로 노래하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잡았다. 본 영상물은 1956년 이탈리아 국영방송국에서 제작한 흑백 필름이라 당시 관행대로 불어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해서 부른다. 돈 호세가 카르멘을 갈로 살해하는 피날레가 마치 〈팔리아치〉의 마지막 장면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언어 탓이다. 역사상 가장 잘 생긴 테너로 자타가 공인했던 프랑코 코렐리(1921~2003)가 돈 호세를 부른다. 그가 이 오페라를 원어로 부른 음반은 명반으로 꼽히지만 이탈리아어로 부르는 니앙스도 특별하다. 돈 호세의 열정이 한층 거세게 발휘되는 것이다. 카르멘 역은 스페인계 멕시코인 혈통인 미국 텍사스 주 엘 파소 출신의 메조소프라노 벨렌 엠파란(1927~2002)이다. 1950년대의 일급 오페라 지휘자였던 니노 산초노가 지휘했으며 당시 자료로는 화질이 깨끗한 편이다.

* 화면: 흑백



HCD 4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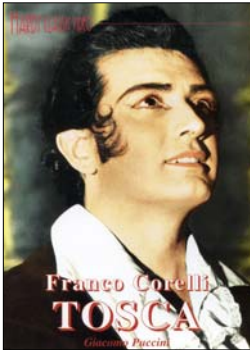
HCD 4014

도니체티: 사랑의 묘약

뫼박의 캐스팅, 레나타 스코토와 카를로 베르곤치의 〈사랑의 묘약〉

테너 카를로 베르곤치(1924~)와 소프라노 레나타 스코토(1934~)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슈퍼스타로서 둘 다 베르디와 푸치니의 정통 오페라에서 최고의 진가를 발휘했다. 그런데 여기 뫼박의 자료가 있다. 도니체티의 희가극 〈사랑의 묘약〉에 출연한 것이다. 1967년 피렌체에서 공연된 흑백 필름이다. 베르곤치는 더할 나위 없이 기품 넘치는 가창력으로, 스코토는 지극히 정교한 테크닉과 실감나는 연기력으로 일세를 풍미한 대가수라 이처럼 아가자기한 소극(笑劇)에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도 실제로는 대단한 호연이다. 특히 순진하고 어수룩한 시골 총각 역을 몸을 사리지 않고 열연한 베르곤치는 평소 그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한층 더 웃음이 나온다. 지휘 역시 묵직한 오페라에서 실력을 발휘했던 거장 자난드레아 가바체니다. 허를 찌르는 출연진이지만 역시 대가들답게 이 전원적인 희가극의 묘미를 완벽하게 살려냈다.

* 화면: 흑백



HCD 4015

푸치니: 토스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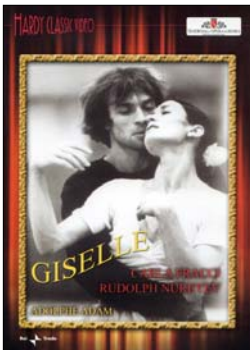
이탈리아인이 뽑은 최고의 카바라도시, 프랑코 코렐리의 〈토스카〉

프랑코 코렐리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잘 생긴 테너였을 뿐 아니라 극장을 통째로 울리는 거대한 성량과 열정적인 창법을 갖고 있었다. 그리스 조각상이 살아 나온 듯한 영웅이 비극을 노래할 때는 그 비감이 한층 배가되었다. 코렐리는 푸치니 오페라 중에서는 〈토스카〉와 〈투란도트〉를 특기로 삼았는데, 이탈리아의 한 방송국에서 역대 테너 중에 ‘별은 빛나건만’을 가장 잘 부르는 가수를 청취자 투표로 선정했을 때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본 자료는 1956년에 영화로 제작된 것인데, 당시로는 보기 드문 컬러일 뿐 아니라 촬영 상태가 양호하다. 또한 미남 테너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른 출연진에 잘 생긴 영화배우를 캐스팅하고 노래만 성악가가 부르도록 한, 요즘에 보기 힘든 시도를 하고 있다. 음성으로 간접 출연한 성악가는 토스카 역에 마리아 카닐라, 스카르피아 역에 잔 자코모 구엘피이다. 특히 마리아 카닐라는 20세기 리리코 스피노의 위상을 정립한 대가수로 코렐리보다 16세나 연상이다.

아당: 지젤

최고의 감동을 선사하는 누레예프와 카를라 프라치의 역사적 실황

20세기 최고의 발레리노 루돌프 누레예프와 〈지젤〉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카를라 프라치가 1980년 2월 로마 공연에서 만났다. 당시 프라치는 44세, 누레예프는 42세로 전성기를 지난 상황이었지만 최고의 상대를 만나자 나이의 한계를 벗어난 놀라운 무대를 보여준다. 얼마나 대단한 공연이었던지는 낫이 나갈 정도로 환호하는 관객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프라치는 1969년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에서 제작한 〈지젤〉영상물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춤을 보여주지만 세트장에서 촬영한 영화라는 약점이 있었다. 실연 무대인 본 자료는 화질이 떨어짐에도 현장감이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특히 1막 피날레의 ‘광란의 장면’에서 펼쳐지는 프라치의 연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누레예프는 이 공연이 그 명성을 확인케 하는 거의 마지막 시기에 해당한다. 그 이후에는 병으로 쇠약해 진 몸 때문에 안무와 예술감독직에 집중하게 된다.



HCD 4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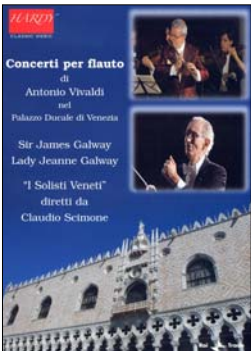


HCD 4029

2008년 베네치아 라 페니체 오페라 극장 신년음악회

베네치아의 자랑, 라 페니체 극장의 2008년 실황음악회

신년음악회는 빈 필하모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원조는 빈이지만 지금은 세계 주요 도시의 여러 극장과 오케스트라가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는 '불사조'라는 뜻의 라 페니체 극장이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1996년 1월에 보수공사 중 전소되었는데 즉시 재건에 들어가 2003년 12월에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재개관했으며 이때부터 이 극장의 신년 음악회는 빈에 다음 가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극장 내부, 라 페니체 오케스트라의 수준 높은 연주력, 최고의 음향이 빛은 결과다. 2008년 신년음악회는 대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조카인 이탈리아의 오페라 지휘자 로베르토 아바도가 포디엄에 섰다. 미국 무용수 다니엘 에즈랄로우가 멋드러진 개막 발레를 삽입했고, 소프라노 바르바라 프리톨리, 테너 발터 프라카로, 베이스 페루치오 푸를라네토가 가세하여 베르디, 로시니, 푸치니, 레온카발로를 연주한다.



HCD 4039

비발디: 플루트 협주곡 Op.10, 두 대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RV533

제임스 골웨이, 진 골웨이(fl)/ 클라우디오 시모네/ 이 솔리스트 디 베네티

플루트의 제왕 제임스 골웨이, 비발디의 고향에서 그의 협주곡들을 연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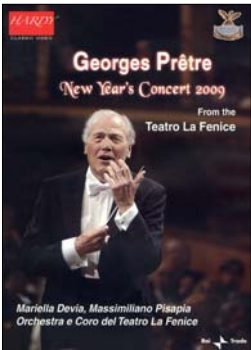
음악성과 대중적인 지명도 양쪽 모두에서 명실상부한 현존 최고의 플루트 연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임스 골웨이, 그의 최근 모습을 담은 값진 DVD가 출시되었다. 비발디의 플루트협주곡 Op.10의 여섯 협주곡을 작곡가의 고향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명승지인 두칼레 궁전에서 연주한 것이다. 비발디의 플루트협주곡 Op.10은 '홍방울새' (3번), '밤' (2번), '대양의 폭풍' (1번)과 같은 인기작품들을 포함하고 있는 바로크 플루트협주곡의 바이블과도 같은 작품집이다. 제임스 골웨이와 그가 자랑하는 순금 플루트를 통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사운드는 이 걸작들의 매력을 한층 더 배가시킨다.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계의 원로격인 클라우디오 시모네와 그의 악단 이 솔리스트 베네티의 정갈한 반주도 나무랄 곳 없다. 골웨이의 진지한 연주장면 틈틈이 두칼레 궁전 내부를 치장하고 있는 화려한 미술품들을 찬찬히 훑어 나가는 카메라워크도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마지막 수록곡인 두 대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RV533에서는 골웨이의 부인 진이 합세하여 부부간의 멋진 금슬을 과시한다.

2009년 베네치아 라 페니체 오페라 극장 신년음악회

마리엘라 데비아(Sop), 마시밀리아노 피사피아(Te)/ 조르주 프레트레/ 라 페니체 오케스트라

프레트레의 노익장과 데비아의 관록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2009년 신년 콘서트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오페라 극장은 1792년 건설된 이래,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 베르디가 활약했던 이탈리아 오페라의 성지와도 같은 역할을 해왔다. 1836년과 1996년 두 번이나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불사조(Fenice)라는 이름 그대로 잿더미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2003년 재개관 이후 매년 1월 1일이면 새해를 축하하는 멋진 신년음악회가 이 극장에서 펼쳐져왔다. 2009년 음악회에는 오페라계의 살아있는 전설 조르주 프레트레가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휘대에 올랐다. 올해 85세의 이 노장은 2008년 빈 신년음악회를 맡으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이번 바그너의 탄호이저 서곡과 바카날, 로시니의 율리앙 텔 서곡, 비제의 카르멘 전주곡과 파랑돌, 오펜바흐의 뱃노래로 짜여진 이번 콘서트에서도 변함없는 노익장을 과시한다. 벨칸토 소프라노의 모범이라고 평가받는 마리엘라 데비아와 리릭과 드라마틱을 오가며 다양한 레퍼토리에서 활약 중인 젊은 테너 마시밀리아노 피사피아가 초대 손님으로 나섰다. 올해 61세의 데비아가 관록으로 노래하는 '정결한 여신이며'가 특히 감동으로 다가온다.



HCD 4037



HCD 4031

푸치니: 마농 레스코

마리아 키아라와 니콜라 마르티누치 전성기의 기념비적 공연

〈마농 레스코〉는 전형적인 프랑스 문학이 이탈리아 오페라로 바뀌면서 라틴적인 강렬함을 함께 갖게 된 예이다. 문인이자 수도사였던 아베 프레보가 창조한 마농 레스코라는 캐릭터는 프랑스 문화의 중요한 키워드인 '팜므 파탈'의 한 원형을 제시한 것으로 나이는 어리지만 향락을 쫓다가 자신을 파멸시키고 연인 데 그리외까지 고통스럽게 만든다. 반면 데 그리외는 상처받기 쉬운 감성적인 남자다. 푸치니는 이것을 오페라로 만들면서 마농의 캐릭터를 상당히 순화시켰다. 그래서 악의 없는 '쁘티 팜므 파탈'로 바뀌어버렸다. 반면 데 그리외는 마치 이탈리아 남자처럼 용감하고 생각을 쉽게 행동에 옮기는 남자처럼 그려진다. 이 영상물은 일세를 풍미한 성격파 소프라노 마리아 키아라, 마리오 델 모나코의 친형 마르첼로 델 모나코의 직계제자였던 니콜라 마르티누치가 1985년 토리노 왕립극장에서 공연한 실황이다. 둘 다 푸치니의 이 초기 오페라에는 다소 무거운 소리의 소유자들이지만 덕분에 연극적 사실성이 살아 숨쉬는 각별한 실황으로 남았다. 안젤로 캄포리가 지휘하고 카를로 마에스트리니가 연출했다.

마우로 비곤체티: 지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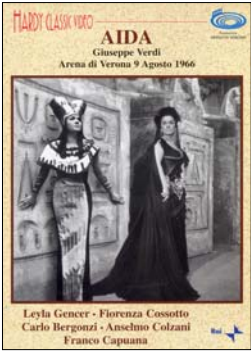
'라인의 율리엄 포사이드'로 불리는 마우로 비곤체티의 대표작

'라틴의 율리엄 포사이드'로 불리는 창조적인 안무가인 이탈리아 로마 출신의 마우로 비곤체티(1960~)는 1982년 아테르발레토에 무용수로 입단했다가 안무로 전향했다. 현재 이 발레단의 예술감독이면서 유럽의 여러 발레단에 작품을 주고 있다. 아테르발레토는 2009년 가을 서울무용페스티벌(SIDANCE)에 참가하여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폐막공연을 펼친다. 〈지중해〉는 1993년에 만든 그의 대표작의 하나다. 친구이자, 라이벌이자, 또 다른 자아(alter ego)인 '땅의 남자'와 '바다의 남자'가 두 이미지를 대립시키다가 융화로 이끌어 나가는데, 이탈리아를 넘어선 개념, 특히 터키 민속음악을 중요하게 사용하는 등 범지중해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줄거리 없이 지중해가 갖는 몇 가지 인상을 형상했으며 외부인이 갖는 지중해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인 라틴적인 밝고 낙천적인 이미지 외에 자극히 서정적이거나 약간의 우울한 정서도 포함되어 있다. 본 영상물은 2008년 라 스칼라 발레에서 리바이벌 공연된 실황을 담았다. 동 발레단의 스타 마시모 무루가 '땅의 남자'역을 맡았다.

[보충자료]

○ 마우로 비곤체티는 1960년 2월 25일 로마에서 출생했다. 이곳의 테아트로 델 오페라 부속학교 졸업하고 1982년 아테르발레토에 무용수로 입단했다. 지금은 이 발레단의 예술감독이며 '라틴의 율리엄 포사이드'란 평을 듣기도 하는 지적인 안무가다. 대표작은 〈지중해〉〈바흐 예찬〉〈사계〉〈카라밋시오〉〈로미오와 줄리엣〉등.

○ 〈지중해〉의 음악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쇠르지 리게티, 팔레스트리나, 지중해 민속음악(특히 터키)을 다양하게 사용했다. 1993년 발레토 디 토스카나에서 초연되었다가 2008년 라 스칼라 발레를 위해 개정되었는데 초연 당시 12명의 군무진은 개정 과정에서 30명으로 증원되었다. 보강된 군무진의 의상에 입힌 색상의 의미에도 주목하시라.



HCD 4010

베르디: 아이다

레일라 젠체르, 베르곤치, 코소토의 1966년 베로나 페스티벌 실황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 이탈리아 북부의 베로나는 로마 시대의 원형경기장에서 펼쳐지는 한여름의 오페라 페스티벌로 전세계 관광객을 끌어 모은다. 이 페스티벌은 1913년 베르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시작되었으며 첫 공연은 〈아이다〉였다. 〈아이다〉는 이후로도 베로나 페스티벌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가장 자주 공연된다. 본 영상물은 1966년의 베로나 실황으로 현재까지 상업용으로 발매된 것으로는 이 페스티벌의 가장 오래된 흑백 필름이다. 터키 출신의 위대한 소프라노 레일라 젠체르가 타이틀 롤을 부른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젠체르는 벨칸토 오페라와 베르디 오페라에서 칼라스에 필적하는 최고의 가수로 꼽혔지만 음반과 영상물은 드문 가수다. 이탈리아의 오페라 평론가 로돌포 첼레티가 역대 최고의 베르디 테너로 격찬한 카를로 베르곤치는 이집트 장군 라다메스를 노래하고, 강인한 표현력을 지닌 피오렌차 코소토가 이집트 공주 암네리스의 집요한 캐릭터를 잘 살렸다. 독일의 명연출가 헤르베르트 그라프의 프로덕션이다.

* 화면: 흑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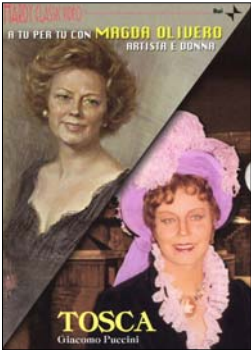


HCD 4022

베르디: 일 트로바토레

노련한 레오 누치와 신선한 디미트라 테오도슈가 펼치는 꿈의 무대

바리톤 레오 누치(1942~)는 베르디 바리톤으로 일세를 풍미했고 아직도 현역으로 맹위를 떨치는 대가다. 최근엔 주로 원숙한 역을 노래하지만 〈일 트로바토레〉의 젊은 루나 백작을 맡자 가발 하나를 쓰는 것만으로 기백이 넘치는 용장으로 변신해 버린다. 마리아 칼라스와 같은 그리스 출신의 '괴물 소프라노'로 명성을 얻고 있는 디미트라 테오도슈는 아직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노련한 노래와 연기로 보기 드물게 높은 수준의 레오노라를 창조했다. 〈일 트로바토레〉는 베르디의 모든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박력을 선사하는데 그것은 주역가수 네 명이 고루 갖추어졌을 때에만 가능하다. 볼로냐 가극장의 2005년 실황인 본 영상물은 요즘에도 이런 공연이 가능하다는 흥분을 불러일으킨다. 테너 미로슬라프 드보르스키(만리코)와 메조소프라노 마리아나 펜체바(아추체나)도 호연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오페라의 거장 카를로 리치가 지휘하고, 최근 성가가 크게 높아진 폴 커란이 연출을 맡았다.



HCD 4011

푸치니: 토스카

90세를 넘어서도 노래한 전설의 명가수 마그다 올리베로의 〈토스카〉

마그다 올리베로(1910~)는 2008년 8월 현재 만 98세를 넘기고도 생존해있는 오페라계의 전설이다. 22세에 데뷔하여 9년간 명성을 떨친 후 결혼과 함께 출연히 무대를 떠나 버렸는데, 작곡가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부름을 받아 10년만에 컴백하여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를 불렀고 그 후 30년간이나 더 무대에 서면서 노익장을 과시했다. 드라마틱 소프라노로 불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푸치니와 베리조모 오페라에 능통한 스피토 소프라노에 가깝다. 올리베로는 영상물과 음반을 많이 남기지 않았는데, 본 자료에는 1960년 이탈리아 국영 방송에서 제작한 〈토스카〉의 전막은 물론 별개의 보너스 DVD에 단편적인 영상자료들, 심지어 오페라 무대에서 은퇴하고 팔순이 넘어 공연한 소규모 리사이틀이나 구십이세의 나이로 밀라노의 성당에서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을 부른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마그다 올리베로에 관한 가장 많은 정보를 담은 영상자료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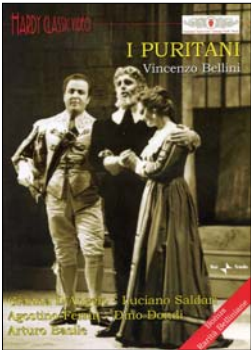


HCD 4023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노장 바리톤 레오 누치가 능청스런 이발사 피기로를 열연하다

이탈리아의 바리톤 레오 누치(1942~)는 환갑을 한창 넘겼음에도 여전히 최고의 바리톤으로 활약 중인 현역이다. 베르디 오페라의 묵직한 역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희극적인 배역에도 능통한데, 특히 〈세비야의 이발사〉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1967년 스피레타의 작은 극장에서 이 오페라로 주역 데뷔했고, 라 스칼라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다가 1975년 다시 솔로로 전환했을 때도 같은 역을 불렀기 때문이다. 본 영상물은 2005년 파르마 왕립 가극장 실황이다. 알바비바 백작을 부른 라울 히메네즈는 오랫동안 최정상급 로시니 테너로 군림한 명가수이고, 로지나 역의 안나 보니타티부스는 바로크 오페라와 모차르트, 로시니를 주로 소화하는 메조소프라노다. 밀라노 태생의 악학도 출신 연출가 베페 데 토마시가 아름답고 전통적인 무대를 펼쳤다.



HCD 4018

벨리니: 청교도

콜로라추라 소프라노 지아나 단젤로의 유일한 오페라 영상물

제인 안젤로비치는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태어나 줄리어드에서 공부했다. 1950년대 초반에 큰 뜻을 품고 이탈리아로 건너가 토티 달 몬테 문하에서 공부했는데 이 전설적인 스승은 제자에게 이탈리아식으로 개명할 것을 권한다. 이렇게 해서 본바닥에서 더 유명했던 레제로 콜로라추라 소프라노, 지아나 단젤로가 탄생한다. 세라핀이 지휘하고 테발디, 베르곤치가 출연한 〈라보엠〉의 명반(데카)에서 무제타를 부른 것이 단젤로의 대표 음반이었는데, 이번엔 1966년 이탈리아 트리스테 가극장 실황인 〈청교도〉 전막영상물이다. 〈청교도〉는 가장 아름다운 선율과 테너에게 엄청난 고음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단젤로는 유려한 미성과 아름다운 자태로 최고의 엘비라를 선사하며, 아르투로를 부른 루치아노 살다리는 카랑카랑한 음색으로 기대 이상의 멋진 고음을 자랑한다. 흑백이지만 이 오페라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소장해야 할 자료다.

* 화면: 흑백



HCD 4027

주세페 디 스테파노

오페라의 연인, 주세페 디 스테파노 최상의 영상자료

주세페 디 스테파노(1921~2008)는 이탈리아 오페라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전설적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파트너로 EMI에서 수많은 명반을 남겼고, 오페라가 존재하는 한 그 레코딩들은 불멸의 이름으로 남을 것이다. 디 스테파노는 청아한 미성의 테너이자 극에 완전히 몰입하여 가사의 뉘앙스를 완벽하게 전달하는 가수로 후배들의 모범이 되었다. 젊은 시절에 너무 무리하여 오페라 가수로서 전성기는 일찍 지나버렸지만 나폴리 민요로 여전히 최고의 성가를 이어 나갔다. 본 영상물은 최근 작고한 이 테너의 진면목을 담은 최고의 자료다. 1997년 인터뷰를 시작으로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라보엠〉 등의 발체 장면을 만날 수 있으며, 그의 대표적 칸초네였던 '무정한 마음'도 포함되었다. 이탈리아 TV 쇼에 출연한 장면 또한 그의 진면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화면: 흑백



HCD 4028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현재까지의 <피가로의 결혼> 영상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실황

모차르트 최고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약 20종의 영상물이 나왔는데 그중 가장 오랜 것은 196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이었다. 여기 그보다 10년 전에 밀라노에서 공연된 자료를 소개한다. 이 오페라는 이탈리아어 대본이므로 이탈리아 오페라나 다름없지만 연출가로는 빈 출신의 헤르베르트 그라프가 초빙되어 빈 스타일을 구현하도록 배려했다. 그라프는 모차르트 연출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대가였다. 출연진은 백작 역의 하인츠 레푸스를 제외하면 모두 이탈리아 출신인데, 니콜라 로시 레메니(피가로), 로잔나 카르테리(수잔나)는 당대 최고 수준의 명가수들이고 특히 백작부인을 부른 마르첼라 포베는 스웨덴 테너 니콜라이 게다와 염문을 뿌렸던 미모의 소프라노다. 50년도 지난 영상자료로서 흑백 화면에 모노 녹음이지만 가장 고전적인 자료란 가치를 인정할만한 음악적 수준을 유지한다.

* 화면: 흑백



HCD 4030

카를라 프라치의 저녁시간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발레리나 카를라 프라치의 1973년 영상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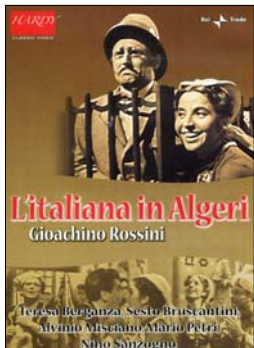
1936년 밀라노에서 태어난 카를라 프라치는 19세기 후반에 맹위를 떨쳤다가 오랜 부진에 빠져 있던 이탈리아 무용계가 20세기 들어 처음 배출한 국제적인 발레리나였다. 오랜 시간을 라 스칼라 발레에서 지냈지만 외국 발레단에도 자주 출연했으며 특히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의 객원 수석무용수로서 출연한 <지젤>(1969)의 영상물에서는 인간의 발놀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앙트르사를 구사한다. 이 자료는 1973년 이탈리아 국영방송에서 제작된 것이다. 가장 고전적이고 우아한 발레부터 오펜바흐의 경쾌한 오페레타, 프라치의 또 다른 상징이었던 줄리엣까지 그녀의 모든 면모를 담아낸 귀한 영상물이다. 그해 몽트뢰에서 열린 '로즈 도르 페스티벌'에 입상했다. 안타깝게도 선명한 화질은 아니지만 더없이 아름답고 기품 있었던 프라치의 자태를 확인할 수 있다.

로시니: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최고의 로시니 명가수, 22세의 테레사 베르간자의 싱그러운 모습!

마드리드 출신의 메조소프라노 테레사 베르간자는 로시니 희가극의 역사상 최고의 명가수로 불린다.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의 이자벨라, <세비야의 이발사>의 로지나, <라 체네렌톨라>의 안젤리나 등 재치와 기지가 번득이는 로시니 특유의 영민한 여성상에 베르간자만큼 안정마춤인 가수는 없었다. 특히 그녀의 화사한 음색과 폭넓은 음역, 아무리 어려운 콜라추라 악구라도 매끄럽게 소화하는 절륜의 테크닉은 무비의 경지에 올랐다. 본 영상물은 1957년 이탈리아 국영방송(RAI)이 당시 겨우 22세의 베르간자를 주역으로 발탁하여 방송용으로 촬영한 것이다. 흑백이지만 젊은 날의 매력적인 베르간자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영상물이라는 가치도 돋보이며 녹음상태가 대단히 깨끗하다. 소프라노 안나 모포의 첫 남편 마리오 란프란키가 연출을 맡았고 당대의 거장 니노 산초노가 무대에 섰다.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은 18세기말과 19세기초에 유행한 탈출극의 유형을 담고 있다. 이슬람 영주의 후궁에 갇힌 유럽의 여인이 탈출하는 구조를 이용했지만 연인의 힘이 아니라 이자벨라라는 여인의 꾀로 남자까지 탈출시킨다는 발상은 과연 극음악의 귀재 로시니답다.

* 화면: 흑백



HCD 4032

이 한장의 명반 저자
안동림 교수가 추천하는

불멸의
연주자시리즈 Vol.1

거장이 피운 최후의 불꽃 - 프라드 실황

Pablo Casals

Festivals at Prades

카잘스 “영혼의 대화”

24CDs를
2.5장 가격에



** 이 박스가 없다면 진정한 카잘스 팬이 아니다

** 펍가이드 등 유명 음반가이드 최고의 평가

** 세기의 거장들 총출연

** 2009년 가을을 강타한 핫 이슈

** 최 만년 카잘스 예술의 찬란한 금자탑

** 이제 이보다 놀라운 카잘스 박스는 없다

Reissue of the Month Gramophone 2007년 7월호

50년대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거장들의 엄청난 이름값과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연주들의 유일무이함, 그리고 이들이 보여주는 사심 없는 음악에 대한 헌신을 담은 소중한 기록이다.

NAXOS RINGTONE (코드링) SERVICE

낙소스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컬러링(통화연결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RACK

코드링 (40초)

코드링 (60초)

Rodgers: Do-Re-Mi (도레미 송)	##7168011	##7268011
Bernstein: West Side Story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7168040	##7268040
Chabrier: Espana (에스파냐)	##7168012	##7268012
Verdi: La Traviata - Drinking Song (축배의 노래)	##7168013	##7268013
Brahms: Cradle Song (자장가)	##7168014	##7268014
Paganini: La Campanella (라 캄파넬라)	##7168015	##7268015
Piazzolla: Libertango (리베르탱고)	##7168016	##7268016
Offenbach: Can-Can (캉캉)	##7168017	##7268017
Strayhorn: Take the 'A' Train	##7168018	##7268018
Caravan	##7168019	##7268019
Un bel di vedremo (어느 개인 날)	##7168020	##7268020
Anderson: Blue Tango (블루탱고)	##7168021	##7268021
Anderson: Belle of the Ball	##7168022	##7268022
Anderson: Chicken Reel	##7168023	##7268023
Fiddle-Fiddle	##7168024	##7268024
Sleeping Beauty: Waltz (잠자는 숲속의 공주:왈츠)	##7168025	##7268025
Swan Lake: Waltz (백조의 호수: 왈츠)	##7168026	##7268026
The Nutcracker: March (호두까기인형: 행진곡)	##7168027	##7268027
The Nutcracker: Dance of the Sugar Plum Fairies (호두까기인형: 사탕요정의 춤)	##7168028	##7268028
The Nutcracker: Chinese Dance (호두까기인형: 중국인형의 춤)	##7168029	##7268029

이용방법 (How to use) >>

곡의 코드링 입력 후 통화 누르기 ➡ ①미리듣기 ②구매 ③선물하기 선택
예) 도레미 송 60초 컬러링 이용방법

##7268011 + 통화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 선택 후 구매.
40초-1,200원 | 60초-1,300원



NAXOS RINGTONE (코드링) SERVICE

낙소스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컬러링(통화연결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RACK

일반 코드링 (40초)

롱 코드링 (60초)

Vivaldi: The 4 Seasons Violin Concerto Op.8 No.3 Autumn - I. Allegro	##7170133	##7270133
Bolling: Baroque And Blue	##7170134	##7270134
Bolling: Javanaise	##7170135	##7270135
Bolling: Irlandaise	##7170136	##7270136
Bolling: Amoureuse	##7170137	##7270137
Bolling: Jazzy	##7170138	##7270138
Garnier: Misty	##7170139	##7270139
Albeniz: Suite Espanola No.1 Op.47 - Cuba (스페인 모음곡 1번 - 쿠바)	##7170140	##7270140
Berlin: I'll see you in Cuba	##7170141	##7270141
Damare: Le Merle Blanc Op.161 (다마레: 하얀 티티새)	##7170142	##7270142
Faure: Berceuse Op.16 (포레: 자장가)	##7170143	##7270143
Piazzolla: Histoire Du Tango - Bordel 1900 (탱고의 역사 - 선술집)	##7170144	##7270144
Schubert: Piano Quintet in A Major, D.667 'Trout' - Theme with Variations - Allegro Giusto	##7170145	##7270145
Over The Rainbow	##7170146	##7270146
We'll Meet Again	##7170147	##7270147
La Mer	##7170148	##7270148
Williams: Star Wars - Main Title	##7170149	##7270149
Mr. Lee	##7170150	##7270150
Feaster: Sh-Boom	##7170151	##7270151
Berry: Maybelline	##7170152	##7270152

이용방법 (How to use) >>

곡의 코드링 입력 후 '통화' 누르기 ➡ ①미리듣기 ②구매 ③선물하기 ➡ 선택
예) '다마레: 하얀 티티새' 롱 컬러링(60초) 이용방법

##7270142 + 통화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 선택 후 구매.
SK Telecom 이용고객에 한하여 사용가능.

40초 - 1,200원
60초 - 1,300원



medici
arts

현존 최고의 여류 피아니스트 아르헤리치의
최근 활약상을 담은 최고의 영상물

마르타 아르헤리치 Martha Argerich 베르비에르 페스티벌 라이브



절찬리
판매중

Medici Arts DVD 3078928

바흐/ 바르톡/ 그리그

루토스와프스키/ 모차르트/ 쇼스타코비치

스위스 베르비에르 페스티벌의 2007년과 2008년 콘서트 실황들 중에서 아르헤리치가 참여한 작품들을 전곡 그대로 모아놓았다. 2007년 실황 중에서는 아르헤리치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프랑스의 젊은 기대주 르네 카푸송을 반주한 바르톡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전곡과 1995년 쇼팽 콩쿠르에서 동메달을 수상하면서 베네수엘라 음악교육의 또 다른 패거리로 화제를 모았던 기교파 피아니스트 가브리엘라 몬테로와 함께한 루토스와프스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파가니니 변주곡을, 2008년 실황 중에서는 한때 부부사이였던 명피아니스트 스티븐 코바세비치와 호흡을 맞춘 모차르트의 피아노 연탄곡 '안단테와 5개의 변주곡' KV.501, 오랜 음악동료인 미샤 마이스키를 반주한 그리그의 첼로소나타, 조슈아 벨, 헨닝 크라게루드, 유리 바슈메트, 미샤 마이스키 등의 올스타급 연주진들과 함께한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오중주 Op.57을 수록하였다. 아울러 함께 수록된 바흐의 파르티타 2번 전곡은 그녀의 독주영상에 갈급했던 애호가들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것이다. 일부 악장만을 수록했던 베르비에르 페스티벌 하이라이트 DVD들이 아쉬웠다면 각 작품들의 전곡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영상물을 놓치지 마시라.



표지사진
파블로 카잘스

<아울로스뉴스> 2009년 8, 9월호

통권 제 39호 발행 : 2009년 10월 5일

발행인 : 임용목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